

多川妥보

2011년 2월 9일 음력 1월 7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135호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04주년 대제 봉행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을 받들자



▲ 원정기념관에서 효강 종령 예하가 종조탄신일 법어를 하고 있다.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총지종 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의 104회 탄신을 맞이하여 '종조탄신대 제'를 전국사원에서 봉행했다. 서울.경인교구 소속 사원 스승들 은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에 모여 합동으로 대제를 지냈다. 이날 봉행식에는 효강 종령 예 하, 지성 통리원장, 총지화 전 통리원장, 서울 경인교구 각 사 원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하였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과 법일 벽룡사 주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헌화, 탄생과 행장에 대 한 낭독, 고유문 낭독, 법어 순 으로 이어졌다. 종조이신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탄생하였으며, 밀교수 법의 수행력과 가르침으로 한국 밀교의 중흥적 발판을 만들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 님께서 열어 놓은 생활불교의

합시다.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고 새로운 모습의 종단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서 지성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종단은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 의 연구에 매진하여 중생구제 의 정신으로 총지종을 만들것' 이라고 발원하였다. 서울.경인교 구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봉축 발원문에서 "교도들에게 퇴전함 이 없는 용기와 건강, 희망을 갖 게 해줄 것과 교세발전이 되기 를" 서원하였다. 이날 탄신 음성 공양은 총지종 마니합창단이 자 리를 함께 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탄신제를 마치고 효강 종령 예하와 지성 통리원 장은 원정 대성사의 유족들과 환담을 나누고 대성사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자리를 만들 었다. 이어서 원정기념관을 둘러

보면서 스승과 교도들은 대성사

의 유품과 사진을 보면서 그 시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기념관은 원정 대성사의 청년시절 활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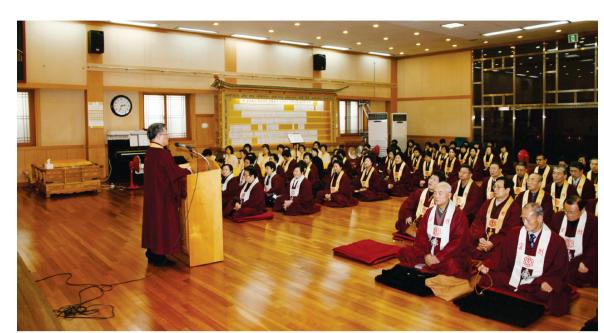
과 한국 밀교 기반을 다졌던 진

각종 시절모습, 의궤에 의한 정 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고 기틀 을 만든 시기까지의 일대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 한 중국,일본등 다른나라의 불교 교류를 활발히 한 모습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창종 당시 사용했던 '옴마 니반메훔' 본존과 법상(法床)이 있으며 사종수법(四種修法)의 의복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

향후 통리원에서는 탄신 100주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정 대 성사의 친필원고자료와 유품 모 음, 학문적 연구와 세미나 개최 를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 다. 그리고 대성사의 육성녹음 테이프의 CD화 작업과 종조법설 집에 대한 증보작업 계획을 준 비하고 있다.

〈박종한 기자〉

"종단 도약의 한해 되자" 전국 스승들 신년하례법회 참석



▲ 지성 통리원장이 스승들에게 새해계획을 서원한다고 했다.

불교총지종은 1월 13일 총지사 에서 신묘년 새해 하례 법회를

이날 법회에는 효강 종령예하 와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 사원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 다.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하례를 시작으로 종령 예하의 헌화, 승 단하례, 교도일동 하례로 이어졌 다.

효강 종령예하는 신년법어에 서 "새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 롭게 반야바라밀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지혜를 당체설법으로 연 결하여 종단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스승은 새 종풍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부처님 진리를 가까운 생활 안에서 찾아 불교를 생 활화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한명이라도 제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불공과 칠정진 불공을 여 법하게 마친 스승과 교도의 노 고에 감사한다. 올해 뜻 세운 계

획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 후 스승과 교 도는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나

- 효강 종령 예하 법어 -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人人是好人(인인시호인) 事事是好事(시시시호사)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벌어지는 일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좋은 일 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용맹정진 새해불공으로 새로운 한해 출발 총지교도 철야기도 원만회향



총지사에서 정진불공하고 있는 스승과 교도.

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

교도들이 동참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교도들이 서원당에 모여 새해 소원 성취와 재난 소멸 등 가정 공을 했다. 총지종은 신묘년을 맞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각 사원에서 새해 정진 불공을 봉행했다. 혹 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국 각 사원의 주교들은 효강 종령 예하의 신년법어를 대독하 였다. 신년법어는 교도들에게 가 정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

하여 용맹정진의 불공을 당부하 였다. 지성 통리원장의 신년사에 서는 총기 40년을 맞아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교도들에 게 알려주었다.

총지사 선도원 주교는 "새해 첫 불공이므로 비중이 크다. 새 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 듯 새해 불공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부 처님에게 다짐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말했다. 교도들은 경애로 운 마음과 행동으로 정성스럽게

처님전에 올렸다. 일부 교도들은 새해불공 기간 동안 사원에서 기거하면서 불공의 시간을 늘렸

불공을 하며 자신의 서원을 부

업무를 지원하는 교무들도 불 공 7일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교도와 같이 불공에만 전념했다.

새해 불공 회향에 이어서 9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 지 철야용맹 칠정진(七精進) 기 도가 있었다. 칠정진은 7시간 동 안 정진불공의 시간을 갖는다. 교도들은 자신의 근기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여 기도를 했다. 대부분의 교도들은 7시간동안 흐트러짐과 일어섬 없이 기도가 계속되었다. 교도들은 굳은 의지 로 108염주를 굴리면서 초지일관 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소리 없 이 내었다. 서원당은 고요한 적 막속에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새해불공과 철야칠정진 기도 는 총지종의 특별기도 중의 한 방법이다.

변천은 가상, 불변은 실상

변천은 가상이며, 불변(不變)은 실상(實相)이다. 만상(萬相)은 무상하여 찰나에도 변하고 있다.

우선 자기 자신도 십년 전의 자기를 볼 수 없고, 작년의 자기를 만날 수 없고 , 어제의 자기(自己)를 만날 수 없다.

마음과 행동도 자꾸만 변하므로

아침의 나는 벌써 저녁의 내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無我)요, 공(空)이다.

그러나 실상은 불변이요, 가상만이 변한다.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 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총기 40년 2월 19일 ~ 4월 8일

◆ 대 상: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총지청소년 겨울스키 수련법회 열어 2박3일간 공동생활과 모험심 길러



▲겨울스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 소년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신나 고 재미있는 스키캠프를 다녀왔 다. 불교총지종 주관으로 열린 겨울 스키 수련법회가 1월 19일 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교도 자녀와 바라밀 공부방 어 린이들과 함께 했다. 전국 각지 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하얀 눈 으로 뒤덮힌 산속에서 마음껏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정기총회

는 올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태종 관문사에서 제32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하기로

스승 예비교육의 일환으로 미

얀마에서 수행한 시무 3명이 1차

교육인 100일 출가 정진 불공을

회향하고 무사히 1월 22일 귀국

작년 10월 5일에 출국한 법선,

서강, 법상 시무3명은 그동안 미

얀마 마하시 비구센터에서 수행

프로그램을 받아왔으며 테라바

에 참석하였다.

했다.

뒹굴고 뛰어 놀면서 스키를 탔 다. 첫날 지성 통리원장의 개회 법어를 대독한 인선 총무부장은 "대자연과 호흡하며 배우는 그 모든 것이 보람있게 보내는 일" 이라고 격려했다. 식전행사에는 이혜숙 교무가 의궤법에 따른 불공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었

록경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고토쿠인(高德院) 경내에 있는

우리나라 건물인 '관월당'의 국

가을쯤에는 양국 여성불자들

이 일본 동경에서 교류대회도

다(상좌부불교)의 위빠사나 관

시무들은 마하시 출가수행교

육을 마치고 사미10계와 비구

227계를 받았으며, 하루 15시간

이상 출가 수행 프로그램을 정

진해왔다. 향후 시무들은 2월중

에 통리원에서 준비한 2차 교육

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교육과 수행을 해왔다.

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불교계 내 귀환을 연내에 적극 추진하

시무 3명, 1차교육 마치고 귀국

▶2월 7일 ~ 13일 2월 월초불공

▶2월 9일 동해중 41주년 졸업식

▶2월 28일 3월 월초불공 시작

▶2월 19일부터 상반기 49일불공 입제

▶3월 4일 동해중 2011학년도 입학식

열기로 했다.

입제식에서 어린이들은 조그만 손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옴마 니반메훔"을 같이 할 때는 진지 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 주었 다. 법일 정사는 만화 동영상을 보여 준 후 "불교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교무들의 지도아래 참가자들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잠자리와 식

당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스키캠프에서는 참가자모두 스키강습선생님에게 안전수칙과 타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마지 막 날에는 초급자 타는 곳에서 재미있게 스키를 타고 내려와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대견 함을 주었다. 학생들은 내년에도 겨울스키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바램을 표현했다. 저녁 때는 서 로들간의 장기자랑을 열어 참가 자 모두가 흥미 있게 노래와 춤 을 즐겼다. 회향식에서 시정 재 정부장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명 심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자기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 다."라고 말했다.

2박 3일동안 캠프를 지내면서 타인의 모범이 된 학생들에게 대한 시상이 있었다. 총지상에는 바라밀공부방 소속의 곽수견군, 정진상에는 건화사 김병훈군, 원 력상에는 벽룡사 윤수지양이 각

대불총 임원, 지성 통리원장 예방

총지종 정사 추대법사 요청



▲지성 통리원장은 대불총임원과 환담을 나누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박희도) 임원들 이 통리원을 1월13일 방문하여 지성 통리원장과 불교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대불총 박희도 회장은 지도 법사를 추 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성 통리원장은 화령 중앙교육원장 을 추천하였다. 환담 후 대불총 회원들은 원정기념관과 총지사 를 들렸으며, 특히 총지종의 호 국사상과 호국진언 '옴훔야호 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한 편 화령 교육원장은 1월 29일 대 불총 정기법회에서 법사 추대장 을 받았다.(사진설명:왼쪽- 이 건호 부회장, 신윤희 상임고문,

권회인 대외협력위원장, 오세찬 기획실장, 오른쪽- 박희도 회장, 이석복사무총장, 이원종 홍보위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호국불교와 호법의 기치를 높 이들고 2006년 10월 30일 창립되 었다. 전역한 육ㆍ해ㆍ공군 장군 과 장교들의 불자모임인 성우회 회원과 재가불자지도 및 스님들 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국가 안보와 한국불교의 전통인 호국 불교정신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 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강원, 경기, 경남 등의 지 부에서 약 5,000여명이 호국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국충정

동해중 새해예산 통과

종립학교 동해중학교에서 제 134회 이사회가 1월 21일 열렸 다. 이날 회의에는 의강 이사장, 대원, 선도원, 강경중, 김무남, 정영문 이사등이 참석하였다. 안 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 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2011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학교 회계 예산안도 심의 원안대로

그리고 명륜2구역 개발조합과 협약체결의 건에서 동해중학교 의 일조환경 침해에 따른 대책 요구에 대하여 조합측이 대책위 원회(위원장 인선)의 요구사항 을 대부분 수용하여 원만한 합 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총지종 통리원은 새해불공을 마친 1월 11일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교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을 가졌다. 이날 지성 통리원장

식을 가지고 스승과 교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하자."고 당부했 다. 이날 집행부와 교무들은 1월 계획사항 점검과 진행사항을 확 인하며 새해업무를 시작하였다.

통리원 신년 시무식 가져

은 법어에서 "교무들이 책임의

깨어나라

수면해오(睡眠解寤) 의환희사(宜歡喜思)

청아소설(聽我所說)

찬기불언(撰記佛言)

잠에서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희망에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라

일찍이 듣지 못한 니르바나의 법을

- 법구경 무상품 -

후원회

지성 통리원장 한일불교협의회의 참석 총지합창문화제(가칭) 11월에 개최예정 지성 통리원장이 1월 24일 한 또한 일본 가마쿠라현의 사찰

3개교구 합창단 중심



▲지성 통리원장이 3개 합창단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기 40년을 맞이하여 총지종 의 위상을 알리고 교도들의 단 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 창문화제가 11월에 개최된다. 통 합창제 계획회의에서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지성 통리원장은 합창문화제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총지종이 불혹의 나이

감사하고 포교의 의미를 갖는 총지 화합마당을 가져보자"고 말했다. 인선 총무부장은 리원은 1월 25일에 있었던 제1차 제는 합창단원이 중심이 될 것 구경북 개천사 합창단 최지형 이며,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기 획업체가 도울 것"이라고 지원 교구 마니합창단 이연수 단장, 사항을 설명했다. 서울경인교구 박정희 총무, 김양희 지휘자 한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합창단원 어진 반주자가 참석했다.

명선정이나 연습과정은 3개교구 지휘자선생님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는 합창단원외의

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곡

일반 교도의 참가로 예술적으로 문화제를 성대하게 하자는 등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전문기획업체 선 정과 대관문제, 개최장소를 홍보 차원과 인원협력차원을 염려에 둔 지정등 기획단이 구성되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성 통리 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 부장, 선도원 총지사 주교, 서울 경인 교구 김은숙 회장, 부산경 남 만다라 합창단 김윤경단장, 이상록 부단장, 하미옥 총무, 대 단장, 김계숙 전단장, 서울경인

를 맞아 대외적으로 재조명하여 의 단결된 모습으로 실력을 발 〈박종한 기자〉

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

2010년 12월 26일부터 2011년 1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12/28	10,000
개천사	신정회	12/28	100,000
개천사	이희권	12/27	10,000
개천사	전경택	1/25	20,000
개천사		1/13	10,000
건화사	이혜련	1/24	10,000
관성사	박길화	1/17	10,000
관성사	박현숙	12/28	10,000
관성사	황성녀	12/29	10,000
관성사	신막심	1/24	10,000
괴산수련원	권성수	1/25	10,000
기로원	경 관	1/25	10,000
기로원	대도행	1/25	10,000
단음사	법연지	1/17	10,000
단음사	천 공	1/5	4,000
덕화사	무명씨	1/4	10,000
덕화사	하순옥	1/14	5,000
만보사	공철봉	1/20	20,000

만보사 정덕순 12/27 20.000 미도노인정 미도노인정일동 12/27 70,000 밀인사 묘심해 1/24 10.000 밀인사 원 당 1/24 10.000 밀인사 이연수 1/23 10.000 밀인사 이재갑 1/23 20.000 밀인사 이혜성 12/29 20.000 밀인사 정정희 12/30 5.000 백월사 이갑진 12/27 10.000 백월사 이갑진 1/25 10.000 백월사 진 평 1/17 5,000 법천사 김정숙 12/27 5.000 법천사 시 정 1/24 10.000 법천사 원만원 1/24 10.000 **벽룡사** 양정현 1/20 10.000 **벽룡사** 양지현 1/20 10.000 **벽룡사** 이종호 12/30 26,000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실지사 경									
		12/30	981,479	운천사	۱[٥				
삼밀사	김문수	1/20	50,000	자석사	장:				
삼밀사	원 송	1/20	10,000	자석사	조				
삼밀사	인법계	1/20	10,000	정각사	구				
서울경2	민교구회	12/29		정각사	김				
		1	,791,000	정각사	박				
선립사	심지장	1/20	10,000	지인사	허				
선립사	정복지	1/20	10,000	총지사	록				
성화사	무명씨	1/24	50,000	총지사	선.				
수인사	김봉기	12/28	10,000	총지사	최				
수인사	장영택	1/6	50,000	혜정사	오				
시법사	진여행	1/3	20,000	화음사	강				
시법사	환수원	1/19	10,000	흥국사	지				
실보사	이순옥	1/7	5,000	기로	대				
실보사	조순애	1/12	50,000	기로	대:				
실지사	송우섭	1/18	5,000	기로	밀.				
실지사	이화수	1/17	10,000		박				

					2010	<u>.</u> 12	.2 202
실지사	정경자	12/27	5,000		박미옥	1/14	200,000
운천사	이병조	1/13	20,000		박준영	1/5	70,000
자석사	장재철	1/5	30,000	기로	법수원	1/24	10,000
자석사	조창환	1/11	10,000	기로	법장화	1/24	10,000
정각사	구정희	1/20	20,000	기로	법지원	1/24	10,000
정각사	김문수	1/12	10,000	기로	불멸심	1/24	10,000
정각사	박동휘	1/25	10,000	기로	사홍화	1/24	10,000
지인사	허성동	12/27	50,000	기로	상지화	1/24	10,000
총지사	록 경	1/19	10,000	기로	수증원	1/24	10,000
총지사	선도원	1/19	10,000		안효정 [12/27	20,000
총지사	최해선	1/20	20,000		이정선	1/20	5,000
혜정사	오혜민	1/24	20,000		이혜원	12/30	5,000
화음사	강순란	1/5	5,000		이희원	1/6	10,000
흥국사	지 정	1/19	20,000		임동수	1/24	30,000
기로	대 관	1/24	10,000	기로	총지화	1/24	10,000
기로	대자행	1/24	10,000		최순전	1/25	20,000
기로	밀공정	1/24	10,000				
	박말조	1/24	5,000	◇위	금액은 전	선액 블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 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인도기행 2

이천년의 세월을 견딘 부처님의 흔적들

중앙교육원장 화 령

3일차 오전인 12월 8일에는 룸비니 오스트 리아 사원 개원 법회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 서는 우리 종단이 유일하게 초청을 받고 종 단 간부와 교도대표들이 축하단으로 참석한 것이다.

이 사원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 랍텐 센터에서 발원하여 세운 티벳 계 통의 사원으로서 티벳 망명인들의 꿈이 서려 있는 뜻 깊은 곳이다. 근처에 있는 한국 사원 은 벌써 십수 년 째 공사중이다. 바로 앞에 있는 대만절을 염두에 두고 더 크게 짓는다 고 그렇게 늦어진다는데 만약 돈 많은 중국 정부에서 더 크게 지으면 우린 어떻게 할 건 지. 무조건 크면 좋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형주의가 여기에서도 보는 것 같아 좀 씁 쓸해진다.

그저 알맞은 규모로 짓되 한국적 아름다움 을 좀 더 강조하고 많은 불교도들이 단합을 하면 금방 완성할 건데 각자의 생각이 다 틀 리니 아직도 완공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

만 행사 중간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예정보 다 늦게 룸비니를 출발했다. 네팔과 인도 국 경을 지나가는데 확실히 십년 전보다 인구가 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십년 전에 인 도 인구가 8억인가 9억이라더니 지금은 12억 이라고 한다. 인플레도 심해서 구걸하는 사람 도 인도 화폐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달러를 달라고 한다.

버스에서는 각자 소개도 하고 불교 이야기 도 하면서 6시간이 걸려 쉬라바스티에 도착 했는데 이곳은 그 옛날 마가다와 쌍벽을 이 루던 코살라국의 수도로서 숱한 일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옛날에는 사밧티라고 했는데 한문으로는 사위성이라고 한다. 특히 기원정 사가 있는 유명한 곳이며 부처님께서는 이곳 에서 24번이나 안거를 지내신 곳이기도 하다.

다음 날인 12월 9일에는 7시에 아침을 먹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깨달 음을 얻었다는 귀의처와 기원정사를 지어 바 친 급고독 장자의 집터를 방문했다. 두 곳이 바로 가까이에 인접해 있었는데 옛날에 세운 탑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굴리말라 집터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

보니 집터가 아니고 살인귀 앙굴리라마가 부

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새사람이 된 곳을 기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불교에 무지하여 그

저 편리하게 그렇게 설명했던 것인데 앙굴리

말라 집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기념탑을

세우고 사원을 세웠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아니고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귀의한 장소

앙굴리말라는 이곳의 브라만 대신의 아들

이었는데 잘 생기고 총명했다. 스승을 모시고

베다를 배우고 있었는데 스승의 아내가 반하

여 구애를 했지만 앙굴리라마는 거절을 했고

를 기념하여 세운 곳이라고 한다.

어 다시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터가 다.

념하여 세운 터라고 한다.



▲ 수탓다 장자 집터에서

앙굴리말라 귀의터의 건너 편은 수닷타 장자 의 집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곳을 기념하 여 탑과 절이 세워졌던 모양이다.

수닷타 장자의 공양으로 지어진 기원정사 2000년의 세월을 딛고 아직도 굳건히

기원정사를 바친 수닷타 장자는 이곳 쉬라 바스티의 부호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 므로 급고독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마가다를 방문했다가 죽림정사를 보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기도 정사를 지어 바치기로 마 음먹고 코살라로 돌아와 땅을 구했다. 그러나 수닷타가 마음에 들어 하는 땅은 제타라는 왕자의 소유였고 왕자는 황금으로 땅을 덮어 야 그 땅을 팔겠다고 했다. 금화를 수레에 가 득 싣고 땅을 덮는 수닷타를 보고 놀란 제타 왕자는 그 이유를 묻고는 자기도 마침내 그 땅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만들 어진 것이 이곳 쉬라바스티의 기수급고독원,

을 방문하여 다시 내려오시라고 청했기 때문 에 부처님께서는 상카시야라는 곳으로 하강 하셨다고 한다. 상카시야도 8대 성지 중의 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너무 멀고 볼 것도 별로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방문하지 못했다. 천불화현탑은 아주 높은 언덕을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위에 유적들이 남아있었다. 이곳의 정상에 오르면 주위가 한 눈에 내려 다보이는데 이런 평원 지대에 여기만 이렇게 불쑥 솟아 있어 도솔천에 오르셨다는 전설이 만들어진 모양이다.

부처님의 반열반지 쿠시나가라 열반상과 사리탑이 말없는 설법을

다음에는 쿠시나가라로 향했다. 일찍 출발 했기 때문에 다행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열 반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바이 샬리에서 아난에게 3개월 뒤에 완전한 열반 에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병들고 지친 몸 우리도 열반상 주위를 돌면서 반야심경을 외

이곳 주위는 상당히 넓어서 공원 같은 분위 기가 났으며 그 때의 그 나무는 아니지만 사 라 나무가 나란히 늘어 서 있는 사라 쌍수도 보였다. 사라 나무의 열 매로 만들었다는 염주 는 흰 색깔이었는데 질 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 중 몇 사람이 관심을 보이 자 염주를 파는 사람들 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제대로 구경을 못할 지 경이었다. 모두들 선물 용으로 한 꾸러미씩 사

들고 겨우 빠져 나왔다. 값이 싸기 때문에 생 각 같으면 다 사주고 싶었지만 실이 약해서 꿰는 일이 더 힘들 것 같아 더 못샀다.

열반당과 약간 떨어진 곳에는 부처님을 화 장한 화장터가 있고 그것을 기념하여 큰 탑 이 세워져 있었다. 원래의 이름은 람바르 탑 이라고 하는데 말라족의 왕들이 즉위식을 거 행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탑도 역시 아쇼카 왕 때에 크게 보수되었다.

쿠시나가라 주변에는 춘다의 집터라든지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을 떠서 올린 아난다 개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터에 있는 마타 카울 사원 등이 있다는데 짧은 일정상 모두 둘러보지는 못했다. 언제 천천히 이곳을 둘러 볼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호텔로 돌 아왔다.

5일째인 12월 10일에는 아침 공양 후 제2차 경전 결집지이자 유마 거사의 고향이라는 바 이살리로 갔다. 쿠시나가라에서 바이살리 까 지는 300킬로미터 쯤 된다는데 도중에 에정 에 없던 곳도 구경하고 점심까지 먹어가며 9 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인도의 길은 아직도 그리 좋은 편이 못되어 시간이 지체된다. 가 는 도중에 보면 인도인구가 늘었다는 걸 확 실히 알 수 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시골 마을이 제법 한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디를 보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책 없이 인 구만 늘어나는 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바이샬리로 가는 도중에 케사리아라는 곳에 들렀다.

이곳은 예정에 없던 곳인데 발우탑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마을길을 조금 걸어 들어 가면 벌판 한 가운데에 벽돌로 쌓은 허물어 진 스투파가 보인다. 인도의 불교 유적지는 대부분이 붉은 벽돌로 쌓은 것이 많은데 발 우를 엎어 놓은 것처럼 모두들 모양이 비슷 하다. 힌두교 유적들은 돌로 된 것도 많은데 보드가야의 대탑을 제외하고는 불교 유적은 하나같이 벽돌로 탑은 쌓은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이 탑도 그런 것들과 비슷했는데 하단부가 만다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참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도대체 이 장소가 무슨 장소인지 불분 명하다. 가이드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준다. 인도의 역사가 그렇듯이 대부분의 유적들도 설명이 불분명하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정 말 이 장소가 정확한 곳인지 도무지 모호하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녀와서

는 미련이 남아서 또 가 보려고 한다.

룸비니 오스트리아 사원 개원법회 참석 단합된 불자들의 모습에 환희가

의 집터를 둘러보고 기원정사로 자리를 옮겼

기원정사는 부처님 당시에 가장 규모가 컸

던 정사이며 불교의 교세를 넓히는 근거지가 되었다. 정사가 지어지자 사리불은 부처님보 다 먼저 이 곳에 와서 교화를 했다. 부처님께 서는 이곳에서 외도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신 통력도 보이고 논쟁을 하시기도 했다. 외도들 은 부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창녀를 고용하 여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 기원정사 앞에 버 려 놓고 불교도가 그랬다고 거짓 소문을 내 기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었으며 결국 수많은 바라문들이 불교 에 귀의했고 파세나디 왕도 부처님께 귀의함 에 따라 불교가 이곳에 정착되었다.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기원정사를 무대로 펼쳐졌던 것이다. 이곳은 2세기 까지 번창하다가 그 이 후에는 쇠퇴했으며 울창한 밀림에 덮혀 있다 가 19세기 말에 서양인들의 발굴에 의하여 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금 발견된 기원정사 터는 남북이 457미터, 동서 가 152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기원정사에는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다는 우물터도 있고 아 난다 보리수나무도 있다. 부처님이 우기 동안 에만 기원정사에 머무시는 것을 애석히 생각 하여 부처님께서 더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 아난다가 보리수나무를 심을 것을 부처님께 건의했으며 이때 목건련이 신통력으로 보드 가야에 가서 묘목을 옮겨 왔다고 한다. 나무 들로 둘러싸인 기원정사 주변의 분위기가 조 용하고 숙연해서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 쁜 일정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 다는 설법터에서 반야심경을 외운 다음 천불 화현탑으로 향했다.

천불화현탑은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을 설복 하기 위해 천불로 화현하셨다가 돌연 자취를 감추시고는 석달 동안 어머니인 마야 부인과 그곳 천신들에게 설법하시기 위하여 도솔천 다는 유명한 일화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에 오르신 곳이라고 한다. 아니룻다가 도솔천

즉 기원정사였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 을 이끌고 이곳 쿠시나가라까지 걸어오셨다. 나 귀의한 앙굴리말라 유적지와 수닷타 장자 급세공을 하는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 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춘다를 위로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셨다.

> 왕사성이나 사위성 같은 큰 도시를 버리고 이렇게 궁벽한 시골까지 오셔서 입멸하신 것 은 사리 분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법에 의지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최후의 말씀을 남 기신 부처님께서는 싸라 쌍수 아래에 자리를 깔고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조용히 눈을 감 으셨다.

>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중생 교화를 하시 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곳에는 부처 님의 입적을 기념하여 세워진 탑이 있는데 아쇼카왕이 처음으로 세웠다고 한다. 탑 옆에 는 열반상을 모신 열반당이 있는데 이 열반 당은 두 미얀마 스님에 의해 1920년 경에 세 워졌다고 한다. 안에 모신 열반상은 5세기 경 에 조성된 것으로 길이가 6미터 정도 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불자들이 경배한다. 신심 깊은 불자들은 열반상에 금박을 붙이

고 절을 하며 경전을 외 우면서 불상 주

위를 돈다.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까지도 일일이 자전거 이에 앙심을 품은 스승의 아내가 스승에게

▲ 앙굴라말라 귀의처

▲ 열반당과 사리탑

부러울 따름이다.

서 끝났다.

야 할 것 같다. 거기에 비하면 오스트리아 사

원은 티벳 망명객들과 유럽 불자들의 합심으

로 저렇게 단기간에 완공을 한 것이니 그저

개원 법회에는 랍텐 센터의 최고 어른인 곤자르 린포체를 비롯하여 네팔 문화부 장관.

룸비니 개발위원회 회장 500여명의 내외 축

하객이 참석했으며 우리와 인연이 깊은 독일

의 거쉰트 씨 부부도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

다. 아침부터 시작한 행사가 두어 시간 정도

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오후 1시가 넘어

곤자르 린포체가 한 시간도 넘게 법문을

한데다가 사원 건립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창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심지어는 막

한 대씩을 주었는데 무척 인상 깊은 장면이 었다. 차도 없는 이곳에서 네팔 노동자들에게 는 자전거는 큰 재산이자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성 싶었다. 자전거를 받고 기뻐하는 그들 의 표정에서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다.

앙굴리말라의 귀의처와 수닷타 장자의 집터를 보다

우리는 1시에 점심식사까지 끝내고 쉬라바 스티로 가게 되어있었는데 마음이 조급했지 앙굴리말라가 자기를 겁탈하려했다고 거짓말 을 했다. 이에 분노한 스승은 앙굴리말라에게 마지막 비전을 전수해 줄테니 1000명의 사람 을 죽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라고 했다. 갈등하던 앙굴리말라는 진실한 깨달음을 이 룰 수 있다는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사 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제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린 앙굴리말라는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까지도 죽이려는 찰나에 부처님을 만나 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이야기이다. 살인죄를 저지 른 사람도 참회를 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 나온 사종수법(四種修法)



▲ 하 자

만약 어떤 중생이 가지가지의 마장을 소멸하 고자 하거나 혹은 복과 혜를 증장시키고자 하거 나 혹은 성과(聖果)를 증득하고자 하거나 한다 면 응당 앞서 말한 의궤에 의해 지송하라 말했 는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의궤에 의해 지송을 하면 모두 구하고자 하 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만약 구하고자 하는 일을 각각 다른 작법으로 하길 원한다면, 다음 아래에 제시하는 법식(法式)을 따르라

〈천수천안관자재보살수행의궤경〉〈칠구지대 명다라니경〉〈신변소〉 및 모든 진언의궤 등에 서 네 가지 법단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1)식 재법 2)증익법 3)경애법 4)항복법 이다.

(1) 식재법(息災法)

식재법(악업, 중죄, 번뇌의 장애 등을 소멸하 고 가지가지의 재난과 구설의 관재 및 아귀들 에 의한 재난을 벗어날 수 있다)을 행하는 자 는 우선 북쪽을 향하고 두 다리를 교차에 앉는 다. 준제보살(准提菩薩)은 남쪽을 향하고, 상 앞에 경단(鏡壇)을 놓는다.

'흰색의 원형의 단으로 관하고 둥근 원단에 〈바〉자 혹은 〈밤〉자가 편재해 있음을 관상하 라! 보살상과 자신의 몸이 함께 원단 가운데 있음을 관상하거나 혹은 보살상 앞에 하나의 둥근 원단을 놓아도 된다.

준제보살을 백색으로 관상을 하라! 꽃과 과 일. 음식을 올리고 또한 의복도 모두 백색으로 입는다. 흰색 단향을 바르고 향을 사르고 물을 사용해 가라앉힌다. 그리고 유즙등을 밝히고 자 비심과 함께 상응시켜라! 매월 1일 초야(初夜) 에 처음 시작하여 8일에 마친다. 매월 삼시(三 時)에 목욕을 하고 삼시에 옷을 갈아 입는다. 하루가 다 되었거나 혹은 단식을 하거나 혹은 음식을 먹거나 할 때는 삼백식(三白食)을 한다.

'삼백식은 이른바 우유.유즙.쌀죽을 말한다. 보살상 앞에 의복을 함께 공양 올린다. 단 마 음의 관상으로 해도 좋다. 다음 아래에서 알게 된다.

염송을 할 때 순서대로 지송해서 준제주에 이르러서는 108편을 염송하고 마친 다음에 '옴' 자로부터 지송을 하고 다음처럼 축원한다.

'옴 자례 주례 준제 000 (본인이름이나, 축원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제재난 사바하

'만약 자신을 위해서면 사바의 글자 앞에다 자기의 이름이나 성취하고 싶은 일을 부르고, 만약 타인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이름이나 일을 불러도 된다.

(2) 증익법(增益法)

만약 증익법(관직이나 명예를 구하거나, 수 명의 장수를 얻고자 하는 자 및 복덕을 구하고 총명한 권속을 얻어 세력이 있고자 하는 자, 금전 재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금은보화 등 보 석을 구하고, 선약(仙藥) 등을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다)을 행하는 자는 동쪽을 향해 가 부좌로 앉는다. 보살상은 서쪽을 향해 있고 준 제보살상 앞에다 경단을 앉힌다.

'하나의 황색 단을 관상하고 주변에 〈아〉자 혹은 〈암〉자가 편재해 있음을 관하라'

준제불상과 자신의 몸이 함께 단에 있음 을 관상하거나 혹은 불상 앞에 다만 칠을



▲ 아 자 관상도

준제보살을 황색으로 관하라! 꽃과 과일. 음 식을 올리고 자신의 의복도 모두 황색으로 입 어라! 향을 칠함에 백단을 사용하고 사금을 섞 어도 좋다. 백단향을 사르고 난 다음 참기름 등 을 밝히고 희열의 마음으로 상응시켜라! 매월 9일 해가 떠오를 때 시작하여 15일에 마친다.

매일 삼시에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마치 는 날에 단식을 하거나 혹은 삼백식을 하라! 염 송은 앞의 순서대로 하고 축원은 다음처럼 하라.

'옴 자례 주례 준제 000 소구여의 사바하.' 이름 및 원하는 일을 말하라

(3) 경애법(경애법)

만약 경애법(일체 성현을 찾고자 하면 천룡 팔부 신장들이 모두 좋아하시고, 설법을 찾으 면 변재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되고 희열이 있고, 일체 모든 사람들의 경애를 구하면 친구, 친척,원수도 다 화합하게 된다)을 행하는 자는 우선 서쪽을 향해 가부좌로 앉고 준제보살상은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 앞에 경단을 놓는다.

'적색으로 반원형의 단을 관상하라! 반원형 단에는 〈하〉자 혹은 〈함〉자가 편재해 있음을 관하라! 보살상에 자신의 몸과 함께 단에 있음 을 관하거나 혹은 불상 앞에 반원형단을 칠해

도 좋다' 준제보살님은 적색의 몸이고 홍색의 옷을 걸치고 있음을 관하라! 꽃과 과일 ·음식 을 올리고 자신의 의복도 모두 적색 이고, 사 금을 사용해 칠하고, 향을 사르고 난 다음 모 든 과일.기름 등과 희열의 마음과 상응하라 16 일 늦은밤에 시작하여 23일에 마친다. 매일 목 욕을 하고 지송을 하기 전에 단식을 하라, 지 송의 순서는 앞의 순서대로 하고 축원은 다음 처럼 한다. '옴 자례 주례 준제 000 년 일체인 경애 사바하'이름 및 하고자 하는 일을 앞의

(4) 항복법(降伏法)

만약 항복법(일체 악 귀신을 항복시키고 악

룡, 금수 및 손해를 입히 는 일체 유정과 일체 악인을 항복시킨

> 다. 국가에 반역 하고 도에 반 심을 가진자 및 삼보의 진 언을 훼손하는 혹은 악주문을 외어 모든 장애를

일으키는 자에게 이 작법을 하면 모두 자 비심으로 변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하거나 혹은 원수가 있어 이 작법을 사용하는 자는 준 제의 모든 경에에서 말하길 반드시 그런자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반대로 세상을 다하도록 어리석다고 했다. 배우는 자는 이 점을 알기 바란다)을 행하는 자는 남쪽을 향해 왼쪽 다리 로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교차해 앉는다. 불상 은 북쪽을 향하게 한다.

'청색의 삼각단을 관상하라! 삼각단에〈라〉 자 혹은 〈남〉자가 편재해 있음을 관하라'

준제불상과 자신이 함께 삼각단에 있음을 관

상하라! 혹은 불상 앞에 삼각단을 칠해도 좋다' 준제보살은 청색, 혹은 흑색으로 하고 자신 의 의복도 모두 청색으로 하라. 청색 꽃과 향 기 없는 꽃 및 만다라화를 올리고 음식은 석류 즙에 검은 색을 섞거나 혹은 청색으로 하라! 백목의 향을 사용하여 바르고 혹은 소오줌을 사용하여 흐르지 않게 하거나, 흑색꽃 및 개자 백목의 향을 바르고 각각 조금씩 물에 넣어 흐 르지 않게 하여 놓는다. 안식향을 사루고 개자

기름 등을 밝혀 분노의 마음과 상응하라! 24일 오시(午時)에 혹은 야반(夜半)에 시작하여 월 말에 마친다. 매월 목욕을 하고 염송을 준비하 기 전에 단식을 한다. 지송은 앞의 순서처럼 하고 축원은 다음처럼 한다.

'훔 자례 주례 준제 훔발타'

만약 악인등 심신이 불안한 자나 혹은 큰병 을 앓고 있는 자나 혹은 임종을 맞이한 자에게 착한 마음을 내도록 권하라! 만약 참회로 자책 을 하고 영원히 악을 여윈 자는 즉 그 사람이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뇨, 부종 등의 주요증상을 나타내게 됩니 다. 출산을 마치게 되면 자연히 치유되지 만 간혹 태아의 사산이나 예상치 못했던

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후로도 입 덧이 심해지거나 구역감이 심할 경우, 빈 혈이 심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주의 깊은 관찰과 경과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중의 지나친 체중의 증가 또한 임신중 독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정체중 (12-15kg)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신중독증이 진행되면서는 혈압이 크게 상승하거나 아침 기상시에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고 체중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 다. 단백뇨가 배출되고 두통과 배의 통증 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할 경우 발작이나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의 관리와 치료는 증상이 가 벼운 초기단계에서는 가정에서 혈압이나 체중변화, 단백뇨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체

관리와 치료는 초기단계에서 혈압, 체중변화, 단백노여부 체크

임신중독

을 통해서

모체에 발

병하는 대

표적인 질

환입니다.

주로 임신

7-8개월의

후 반 기 에

발 병 률 이

높으며 고

혈압, 단백

결과가 나타나기도하니 임신초기부터 정기 적인 검진과 체중번화 등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임신중독증의 원인은 임신을 하면서 변 화되어 나타나는 호르몬변화 및 순환관계 의 변화에 산모가 유동적으로 잘 조절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며 초산일 경 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평소 당뇨나, 고혈압, 신장병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임신중독증을 유발할 확률이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한 여성들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신중독증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가벼 운 입덧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덧의 경우 임 신6주-16주 사이에 나타났다가 자연히 소 크하며 안정을 취하면서 식이요법으로 조 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경련발작 등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상황을 보아 산모 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궁골반내의 혈액순환 을 도와 태반으로의 원활한 혈액공급을 도 와 임신의 유지와 변화과정에 자궁과 인체 및 태아가 순응할 수 있도록 안태(安胎)와 보혈보음(補血補陰)하는 처방 등을 활용하 게 됩니다.

무엇보다 임신중에는 산모의 정신적, 신 체적인 안정이 임신의 유지 및 분만이후의 회복에 도움이 되니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수면,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가는 데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법을 하면서 염송을 하면 바로 재난을 면 하게 된다.

이상 네 가지가 바로 성취법이다. 만약 이 네 가지 법으로 성취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작법을 하기 전에 준제진언을 지송하되 50만편 혹은 70만편을 혹은 100만편을 먼저 지 송하라! 이 네 가지 성취법 가운데 마음에 따 라 한 가지 법을 행하고자 결정을 하면 성취를



▲ 라 자

이익을 위해, 명 성을 위해서, 목숨 을 마칠때 친히 참구하라! 삼신이 러면 어떻게 모든 서 설하셨다.



▲ 현밀원통성불심요집

의지할 수 있겠는가 비밀의 신주(神呪)를 염송 하여 이익 증상법 가운데 작법을 지어 마음 따 다하도록 생각하 라 구하는 바를 결정하고 일체 죄업이 다 소멸 라! 무상의 죽음 된다. 그러면 무상(無常)의 죽음이 도래해도 이 오게 되면 바 또 우세한 곳에 태어나 현재와 미래를 다 구비 로 열악한 곳에 하여 이락(利樂)을 얻게 되리라!. 어찌 착하지 태어나게 된다. 그 않겠는가! 강철 같은 이익이 있기에 부처님께

부처님의 성언을 ※종단은 항복법을 유보한 상태이다.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월경병:월경불순,생리통,무월경,월경곤란증,갱년기 장애,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임신병:불임,임신오저(입덧),임신중독증 등…

-산후병:산후풍,산후비만,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KB5(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종조틴신

원정(苑淨) 대성사(大聖師)에 대한 회고(回顧)



▲ 원정대성사의 20대 모습

대성사 원정종조(苑淨宗祖)님의 속성은 일 직(一直) 손씨(孫氏)이고, 휘(諱)는 정우(禎 佑), 법호(法號)는 원정(苑淨)이다. 1907년 1 월 29일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다.

타고난 성품이 영특 민첩하고 불요불굴의 의지와 정의감, 뛰어난 기지와 고매하신 인격 을 소유하신 큰 그릇이다. 영남의 훌륭한 가 문에서 태어났으며, 놀라운 기억력과 천재성 을 지닌 종조님은 어린나이에 사서(四書)를 두루 익히셨고, 탁월한 문장력과 주역(周易) 과 노장(老莊)에도 조예가 깊었다.

일찍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현대의 고등교 욱을 마치고, 다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였 으나, 불교에 뜻을 세우신 후 한반도와 만주,

중국 등 두루 다니며 불경의 수 집과 연구에 몰두하였다. 피비린 내 나는 6.25사변을 보고 동족끼 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 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 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護國 佛敎)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 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비(大 慈悲)의 서원을 세웠다.

큰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는데 성사께 이심전심으로 홀연히 한 대덕이 다가왔는데 그 분이 진각 종(眞覺宗)의 종조인 회당조사 (悔堂祖師)이다. 그 분도 같은 뜻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불교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대덕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두 거성은 손을 잡고 진각종을 발판으로 삼아 밀교중흥(密教 中興)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밀교의 비법만 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실의와 좌절 로부터 건져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염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회당성사의 폭 넓은 도량과 중후한 인품에

맞추어 원성대성사의 신묘한 지혜와 박식한 교학을 바탕으로 종단은 나날이 발전했다. 원 정대성사는 탁월한 기획과 저술로 현대 밀교 의 뚜렷한 지침을 설정했고, 종명도 확실하지 않던 종단에 종명을 부여함은 물론 종단의 기본교리가 되는 각종 교전을 편찬하여 이나 라 밀교의 주출돌을 놓았다. 그러나 1963년 10월 16일 회당조사가 열반에 들었다. 이에

원정대성사는 종단의 총인직을 맡아 8여년동



을 품고 진각종을 개교하였으나, ▲ 창종을 선포하고 있는 원정대성사

안 진각종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총본산을 대구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으로 옮겼으며 종조전을 건립하고 찬덕비를

원정대성사는 잊혀졌던 조선시대의 밀교비 법, 경궤(經軌), 다라니와 수법(修法)등을 발 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밀교와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었고, 인도, 중국, 티벳트의 밀 교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성사는 정성을 다 바쳐 가꾸어온 종단의 교 상(敎相)과 사상(事相)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점을 고착되기 전에, 여생이 끝나기 전에 하루 속히 보완해야겠다고 불철주야로 준비를 해 왔다.

1971년 마침내 이 숙원의 대업에 착수하였 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중요한 작업은 실패 로 끝나고 말았다. 성사를 따르고자 하는 대

부분의 승직자와 교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 고 밀교에 생소한 일부 사람들의 무지에 의 한 종교 외적인 곡해로 뜻밖의 사태가 벌어 졌다. 대성사는 종단에 대하여 교각살우(矯角 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고 개탄하 시고, 그해 12월 총인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 에서 사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회당선사의 영 전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진각종을 떠났다. 그리고 종단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종적을

하지만 중생구제의 큰 서원을 세웠던 성사 는 1972년 1월1일 상도동 은거에서 정순(正 純)하고 완벽한 밀교종(密敎宗)의 창종을 위 한 정법체득(正法體得)의 백일정진에 들었다. 백일정진이 끝나는 4월 7일밤 백수노인 으로 부터 금관을 받았으며, 이튿날 꿈에 노인으로 부터 "대승장엄보왕경(大乘蔣嚴寶王經)과 준 제관음법(准提觀音法)으로 교화하라"는 계시 를 받았다. 성사께서는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서 "중생의 고난을 없애 고 그들의 바람을 만족시 켜 주라"는 가르침을 널 리 나타내 보이신 것을 활연히 깨닫고 곧바로 교 상확립(敎相確立)에 착수

그 해 8월 21일 정통밀 교의 마니보주(摩尼寶珠) 를 비장한채 상봉동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은거생 활을 마감했다. 그동안 성사의 행방을 찾아 동분 서주하던 수많은 스승들 ▲ 초창기의 교도대표들

과 교도들이 합심 단결하여 입교개종(入敎開 宗)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72년 12월 24일 상봉동에서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여 개종불사겸 창종식을 거 행하였고, 종명을 불교총지종(佛敎總指宗)으 로 정하여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우리나라 최 초의 정통밀교가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 계(印契), 엄격한 의궤(儀軌)와 사종수법(四 種修法)을 비롯하여 이론적인 조리가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추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 러냈다.

종단의 종령으로서 종단을 영도하며, 총지 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불과 창종 8 년만에 국내 유수의 종단반열에 올랐다. 그러 나 1980년 9월8일 종조님은 7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정통밀교 총지종은 원정대성 사의 가지신력으로 온 누리에 호국불교의 대 비원(大悲願)과 함께 나날이 충실하게 뻗어 나고 있다. (출저 : 정통밀교 불교 총지종)



원정대성사의 설법

새로운 종풍운동에 나오는 법구 절에서 종조법설집(宗祖法說集)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보았 습니다. 내용과 상이(相異)한 부분 도 있습니다. 종조탄신제를 맞아 종조님의설법을 되새기는 뜻에서 구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편집자 주)

A. 정진(精進)

1. 수도(修道)에는 불퇴전(不退轉)으 로 수행(修行)해야

수도(修道)는 종교적(宗敎的) 욕구 (欲求)를 충족(充足)시키기 위하여 영 원(永遠)한 진리(眞理)를 체현(體現) 하려면 가치(價値) 실현(實現)을 위 (爲)한 인격활동(人格活動) 즉, 실천 (實踐) 수행(修行)이 수반(隨件)되지 않을 수 없다. 미망(迷妄)된 현실(現 實)은 결(決)코 신(神)이 조작(造作) 한 것도 아니요, 인(因)도 없고 연(緣) 도 없이 이루워진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人間) 자신(自身)이 지은 것이므 로 인간(人間) 스스로가 이에 책임을 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불퇴전(不退轉)의 인 간(人間) 수행(修行)의 필요성(必要 性)이 있는 것이다.

2. 삼밀관행

육대(六大)를 체(體)로 하여 연기 (緣起)하는 만상(萬相)들은 반드시 모 든 작용(作用)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것을 신(身), 구(口), 의(意) 의 삼밀 (三密)이라 한다. 이를 현교에서는 삼 업(三業)이라 하여 좋은 대조(對照)가 된다. 이 삼업(三業)을 정화(淨化)하는 것이 곧 삼밀(三密)이니 즉,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관행자(觀行者)의 공덕력(功德力)과 법계(法界)의 통합 력(統合力)에 의하여 정화(淨化)되는 것이므로 삼밀관행(三密觀行)으로 공 덕(功德)이 일어나는 것이다.

밀교에서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진 언문(眞言門)을 개창(開創)한 것은 저 양일승(兩一乘)이 사유적(思惟的)인 선관(禪觀)에만 의(依)하여서 진리를 각오(覺悟)하려 하는 유심적(唯心的) 인 그 경향(傾向)을 차원(次元)높이



▲ 원정대성사의 자필 원고와 노트

전인적(全人的)인 불이문(不二門)을 성해진다. 이것을 다스리자면 먼저 옳

이것을 진언비밀보리도(眞言秘密菩 提道)라고 함이니 이를 실수(實修)하 여 본존(本尊)의 삼밀(三密)과 행자 (行者)의 삼밀(三密)이 상응(相應)하 여 평등법계(平等法界)를 자증(自證) 하게 된다. 즉 우주법계(宇宙法界)의 일체형색(一切形色)은 법계법신(法界 法身)의 신밀(身密)이요, 우주법계(宇 宙法界)의 모든 음성(音聲)은 법신구 밀설법(法身口密說法)이며 형색음성이 밀(形色音聲二密)에서 활동하는 그 진 리(眞理)는 그 모두가 법신여래의 의 밀이다. 이에 대한 행자들의 관행(觀 行)하는 삼밀행(三密行)은 법신여래 (緣起)하고 분화(分化)하여 있는 것에 다름이 없는 까닭에 본존여래(本傳如 來) 삼밀(三密)이나 관행자(觀行者)의 삼밀이나 본래일여평등(本來—如平等) 으로 삼삼평등관(三三平等觀)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즉신성불(即身成佛) 이라 한다.

B. 보시(布施)

1. 희사(喜捨)

(1) 무상희사(無相喜捨)는 삼륜체공 (三輪體空)하여 보시를 행한 사람 보 시를 받는 사람 보시한 물건을 모르는 까닭에 그 공덕이 허공과 같아서 한량 이 없느니라.

(2) 십일회사는 무주상보시(無住相 布施)므로 그 공덕이 다른 보시보다 백천만배가 크고 세세로 불과가 무량 할지니라. 그것은 무소득(無所得)이며 무상(無相)인 까닭이니라.

(3) 조석에 어른의 밥을 먼저 담는 것과 같이 수입할 때 제일 먼저 부처님 께 바치는 십일희사법을 세우면 가난과

(4) 물질시대는 재물을 무정하게 벌



게 쓰는 법으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5) 물질시대의 재물은 희사로 복되 게 나가는 것과 고통으로 나가는 두 문이 있으므로 복의 문을 힘써 여는데 재화로 나가는 문이 닫혀진다. 만약 부정하게 들어온 재물(財物)에 희사문 (喜捨門)을 열지 않으면 그 재화(災 禍)는 한량이 없느니라.

(6) 희사묘덕(喜捨妙德)은 현재에는 곤난(困難), 재앙(災殃), 우환(憂患), 질 병(疾病)을 소멸하고 미리 없애며 미래 에는 부귀하고 복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7) 희사묘덕은 가난한 사람에게 수 입이 많아지고 부유(富裕)한 사람에게 는 여러 가지 헛되게 나가는 것이 적 그 삼밀이 행자개체(行者個體)에 연기 어지는 것이니 각자가 절량(節糧) 차 별(差別) 십일희사를 실천하여 그 묘 덕을 내증(內證)하여 볼 것이니라.

(8) 절량희사 묘덕은 양식(糧食)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체 재난(災難)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차별희사 묘덕은 무슨 서원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9) 절량희사는 생미(生米)로써 불 공 함이라. 때마다 식구마다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므로 세계로 자량(資糧)이 증장(增長)하고 복덕이 무량하다.

C. 수순 (隨順)

1. 마음을 바로 닦자.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를 말고 수원 (讐怨)은 일시라도 두지를 말라. 내가 어버이에게 효순(孝順)하면 자식이 어 찌 효순하지 않겠느냐. 효순은 심덕 (心德)의 대원(大元)이요 백행의 근본 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마음을 잘 닦자면 나라에 충성하 고 부모에게 효순하며 가정에 화목하 곤난은 떠나고 안락과 행복이 오느니라. 고 친구에게 신(信)을 두고 남에게 불 의(不義) 하지말며 산목숨 죽이지말고 끌어올려서 삼밀로써 행득(行得)하는 고 불의하게 쓰는 두가지 악이 점점 남의 재물 훔치지 말며 내 가속(家屬)

두고 남의 사람 욕심두지 말며 모진 악담 하지말며 두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며 말을 이리저리 꾸미지 말며 남의 못된 험담 하지말며 못된일 하지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잘 닦 는 것이니라.

「옴마니반메훔」을 어찌 이렇게 외우 는가. 이 진언을 외우는데 비로자나부 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이전에 잘 못한 것을 알게되고 마음이 곧 고쳐지 게 되느니라.

마음 고치는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 는가. 관음보살 본심진언(本心眞言) 「옴마니반메훔」을 오나가나 항상 외 우고 하루 열 번 이상 자성참회(自性 懺悔)만 하면 탐진치(貪瞋癡)는 물러 가고 본심(本心)이 일어나게 된다.

을 세우려고 한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理致)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내 허물을 어떻게해야 쉽게 알 수 있는가?

남이 내 허물을 말하거든 즐겁게 듣 고 스승과 친구와 부모와 형제에게 묻 는 것이 속히 알게 된다.

2. 감사하는데 병이 낫는 원리

현상적(現象的)으로 나타난 인간은 적어도 몇백조의 세포에 의하여 구성 되어 있다. 이들 세포의 특성은 생장 신체는 살, 혈액, 뼈는 육십년마다 전 연 새로운 것과 교체되고 새로 생긴 다. 이와같이 가경(可驚)할 인체의 세 理)로서 영적가능성(靈的可能性)을 부 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잠 재의식, 즉 상념활동이 과거와 달라질 때 과거의 상념생활(想念生活)에서 얻 었던 병이 의식(意識)의 변화(變化)로 낫게 되는 것이다. 참회(懺悔)와 보은 (報恩), 감사(感謝)로서 병이 낫는 원 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정신 과학이다.

3. 순리(順利)

땅에 엎어지면 땅을 짚어야 일어난다. 육대사만삼밀은 법신불의 응화신인 즉(即) 조화체(造化體)로서 인과의 진 리를 소소영령(昭昭靈靈)하게 밝혀 주 이다. 이것이 선후본말(先後本末)의 는 지극공도(至極公道)이며 만물을 생 성화육(生成化育)하고도 조금도 상을 나타내지 않는 응용무념(應用無念) 순 나 본질적으로 선하기만한, 결정(決定)

자연(順理自然) 광대무량의 체성이다.

D. 생활불교

1. 인간(人間)

과학문명(科學文明)이 발달(發達)할 수록 인간은 인간성(人間性)을 잃고 향락적(享樂的), 타락적생활(墮落的生 活)에 주저(躊躇)하지 않고있다. 과도 (過度) む ぎ は (享樂) 은 타 라 (墮落) 을 초래(招來)한다. 그러므로 이시대(時 代) 만큼 인간성(人間性)이 요구(要 求)되는 시대(時代)도 없으며 따라서 그 가치(價値)도 높아진다. 이것은 곧 종교활동(活動)과 종교적(宗教的) 신 앙생활(信仰生活)에서 인간성을 높여 야한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인간은 저마다 선(善)을 주장(主張)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 하지만 마음속에 이기주의(利己主義) 로 하는가. 내마음을 닦고 밝히는 법 가 도사리고 있는한 그것은 위선(僞 善)에 불과하다. 진실(眞實)한 선이란 다만 봉공(奉公)이다. 이타(利他)에 있 사견(邪見)에 집착하여 인과이치(因果 는 것이다. 즉(即) 소아(小我)를 떠나 대아(大我)에 봉사(奉仕)해야 한다.

인간은 목석(木石)이나 금수(禽獸) 가 아니다. 그것은 그 의식구조(意識 構造)의 탁월성(卓越性)이니 바로 잘 잘못을 아는 의식의 주인공(主人公)이 다. 이것은 곧 가치판단(價値判斷)으 로 확대(擴大)되어 의식에만 그치지않 고 행동화(行動化)되어 생활에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선악(善惡)의 판단(判斷)은 결(決) 코 전통적(傳統的)인 교육(敎育)의 결 하고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이다. 즉 과로서 비로소 가능(可能)하게 된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선천적(先 天的)으로 그것을 알만큼 판단의 가능 성(可能性)을 그 의식 기능(機能)속에 포활동(細胞活動)은 우주의 현리(玄 지니고 태어난 존재(存在)이다. 단적 (端的)으로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여한 것이다. 이 세포가 곧 상념(想念) 이는 가장 고귀(高貴)한 마음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니 인간의 기본적(基本 的)이며 동시에 최대(最大)의 특유성 (特有性)인 참회(懺悔)하는 마음이다. 금수(禽獸)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이 참회없이 교육(敎育)을 통(通)한 지식(知識)만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악 용(惡用)하여 자기의 죄과(罪過)를 합 리화(合理化)하려 들고 선(善)을 가장 (假裝)한 위선(僞善)에 기교(技巧)를 부리기에 힘쓰며 진정(眞正)한 선(善) 을 부정(否定)하려든다. 그러므로 인 간이 된 연후(然後)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이 자타(自他)에 도움이 될 것 원리(原理)인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本質的)으로 악 하거 환(循環) 무궁(無窮) 영원 불멸 순리 되고 완료(完了)된 존재(存在)가 아니 는 실천이 요선(要先)이다.)

다. 부처님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 신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어떤 고정 (固定)된 운명(運命)에 결박(結縛)시키 지는 못하는 것이다. 쉽고 어려운 구별 (區別)은 있을망정 인간에게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형성(形成)할 능력이 부여(賦與)되어 있다. 보살도 되고 성불(成佛)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이다.

생활(生活)과 교조(敎條)를 원만(圓 滿)하고 정당(正當)하게 결부(結付)시 켜야만 생활불교가 되는 것이다. 교조 (敎條)를 위주(爲主)로 한다면 생활은 교조의 노예(奴隷)가 될 것이요, 생활 을 위주로 한다면 교조는 한갓 공염불 (空念佛)에 불과(不過)하다. 이율배반 (二律背反)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불설 (佛說), 그것은 곧 인간생활의 향상(向 上)을 위한 것이며 그에 입각(立脚)한 생활은 곧 진리(眞理)이기 때문이다.

E. 중생제도

1. 법시공덕(法施功德)

법시공덕은 삼종시(三種施) 가운데 최상이라고 경(經)에 설하시고 부처님 께서도 성도(成道)하신후 먼저 다섯사 람을 제도(濟度)하여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가 서게 되었으므로 우리교 에서도 누구든지 다섯집을 제도하여야 하느니라. 그 복덕은 부처님과 같이 세세(世世)로 무궁하고 현세에서도 결 정코 소원이 성취되느니라.

2. 속제(俗諦)와 진제(眞諦)

지혜는 여러가지가 있다. 세간지(世 間智)가 있고 출세간지(出世間智)가 있다. 세간지란 것은 육안(肉眼)으로서 보고 배우고, 출세간지란 것은 심안(心 眼)으로서 관(觀)하여 깨치는것이다. 출세간지에는 방편지(方便智)가 있고 또 진여실상지(眞如實相智)도 있다.

중생의 지혜와 불의 지혜가 이것이 니라. 중생의 지혜란 옅고 사람을 속 이고, 불의 지혜란 깊고 넓어서 사람 을 제도하나니라. 전자는 탐욕이 있는 까닭이며, 후자는 자비가 있는 때문이 니라. 그러므로 반야(般若)는 소득이 없음으로써 그 근본을 삼느니라.

3. 중생구제는 실천

세상을 구제하는 데는 이론이 필요 없다. 요는 실천이다. 물에 빠진 자는 먼저 언덕에 올려 놓고 옷과 먹을 것 을 준 후에 그 다음 빠진 원인과 신분 을 물어야 한다. (금강(金剛)산, 솔거 화송(率居畵松) 등 예술과 구경도 좋 지마는 급급한 중생(重生) 구하는 데

ורוסוס בואליות

새해를 맞은 일상속의 생각들

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

요즈음 때때로 오래 전 일을 떠올리고 생각에 잠 길 때가 많아 지고 있다. 너무 빨라진 세월의 흐름에 당황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벌써 신묘년 새 해가 밝아 온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지난 한 달 동안 난 무엇을 했나? 되짚어 보니 많은 일이 있었 다. 먼저 신년불공을 잘 마쳤고 설날 차례도 잘 모셨 다. 나름대로 일을 잘 해낸 것 같은데 무엇인가 채워 지지 못한 것 같아 가슴 한쪽이 허전해 온다.

올해 신년 불공 하는 동안 난 배운 것이 너무 많 았다.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셨다.

나도 늘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길지도 않은 인생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보살님께 해 드릴게 너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조그만 실천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하려고 노력 한다. 지하철 역이나 차 안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못 본 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 주고 있다. 또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도와 주려고 한다.

철새들이 돌아오지 않은 하천은 더욱 얼어붙은 동 토를 연상 시켜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한다.

혹시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면 철새들이 늦게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려 본다.

눈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 이 생각난다. 한밤중에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 져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보았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하얀 눈꽃 세상, 온통 하얀 세상에서 눈은 하 늘하늘 춤을 추며 사뿐이 내려 앉고 있다. 마치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우주의 어느 눈 나라에 날아 온 것 같다. 잠시 사람을 몽롱하도록 취하게 만든다.

나도 새하얀 옷을 입고 함박눈을 맞으며 눈 나라 보살님들이 내게 "남을 위한 배려는 이렇게 해야 에서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다. 어느 누 가 이렇게 환상적인 밤을 연출 했을까? 신의 힘으로 도 불가능한 일이다. 잠시 동안이지만 난 환상 속에 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 아주 오래 전 임진각에 갔을 때의 일도 생각난다. 우리들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서로 연락도 없이 무작정 서울역에서 만났 다. 오래 전 약속인데도 모두 나왔다. 우린 너무 반 갑고 신났다. 서울역에서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사고 파주 가는 기차를 타고 임진각으로 향했다. 약속을 잊지 않고 다 같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 다. 기차에서 차창밖에 쏟아지는 눈을 보며 간식을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에게 위로하고 배려가 필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

이 모든 것이 보살님들이 내게 가르쳐주신 것을 실 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특히 90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한다. 동 장군의 기세에 놀라 모두 움츠리고 있다. 눈도 예년 에 비해 많이 내렸다. 거의 폭설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더 많아 질 것이다. 도움은 사람들만이 아니 다. 동물들도 겨울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산에 눈 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동물들도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동물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들도 우리들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 겼는데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을 탓 할 수만은 없 지 않은가? 우리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 어 주고 산에 떨어뜨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동네 하천에서도 철새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겨울에는 철새들이 찾아와 청둥오리들이 자맥 질도 하고 두루미들의 우아한 자태도 보여 주었다. 때로는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군무도 보여주어 나를 즐겁게 해 주었는데 하천이 꽁꽁 얼어 버렸다. 그들 은 아마 따뜻한 남쪽 어딘가에서 여전히 신나게 놀 고 있겠지.

맛있게 먹고 신나게 떠들며 여행을 즐겼다.

임진각 도라산역 근처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들도 눈을 즐기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들 도 눈이 하얗게 덮인 논밭에서 마구 뒹굴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뛰어 다녔다. 철새들도 놀라 하늘로 힘 차게 날아올랐다. 우린 신이 나서 더 뛰어다녔다. 그 때는 철이 없었는지? 천진난만 했는지? 우린 그렇게 하루를 그대로 눈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양말이 다 젖어 난로에 말려 신느라고 고생 좀 했다. 지금은 그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멀리 안산에 살면서 친구들과의 옛 추억이 더 욱 그리워진다. 친구들과도 나 보다 친구를 더 생각 하는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늘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요즈음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 수많은 목숨은 어찌할 것인지? 아무쪼록 빨리 끝나 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 램 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 해 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박묘정

불교설화 <52>

被全程车就对生

- 총명한 지혜를 지녀야 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면 죄를 받는다 -

전세에 어떤 두 형제가 불법에 뜻이 있어 출가하여 수행하였다.

형은 부지런히 수행하며 여러 가지 선 행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 안되어 아라한 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은 매우 총명한 머리로 경 전을 부지런히 익혀 얼마 안가 삼장을 다 외웠기 때문에 삼장 법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이 나라의 재상이 삼장 법사를 건축사로 초빙하여 많은 자금을 주고 승 방과 탑사를 건축하게 했다. 자금을 받 은 삼장 법사는 일꾼과 함께 땅을 구하 여 탑사를 건축하였다.

마침내 그 절이 완성되고 보니 매우 웅장하고도 수려하였다. 그 구성과 솜씨 가 매우 절묘하고 정교하였으므로 그것 을 본 재상은 삼장 법사를 존경하고 신뢰함은 물론 생활에 무엇 하나 모 자람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삼장 법사는 재상에게 좋은 호의를 받게 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절은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스님들 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면 된다. 이 기회 에 재상에게 말하여 나의 형님을 초빙하 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법사는 재상에게 가서 말했다.

"제게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출가하 여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주님께서 저의 형을 초빙하여 이 절에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비구의 청이라 도 거역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법사님의 형으로

서 또 수행을 쌓은 분이시니 여부 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재상은 곧 사람을 보내 어 정중하게 청하였다. 그가 이 절에 와 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재상은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하였 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것을

본 재상은 어느날 고급 비단을 그 수 행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값으로 따지면 천만냥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수행인 은 그걸 받지 않으려 했다.

재상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했으므 로 받긴 받았으나 '내 동생은 여러가지 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 이런 재물이 필 요할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비단을 동생에게 주었다.

그 후에 재상은 질이 나쁜 비단이 있 삼장 법사는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

그 후에 또 재상은 천만 냥의 값어치 가 되는 비단을 삼장법사의 형에게 보시 했다. 형은 그것을 받아 이번에도 동생 에게 주었다. 동생은 심한 질투심이 일 어났다. 형한테서 받은 비단을 가지고 재상이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갔다.

"당신의 아버지가 전에는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었소. 그런데 저 비구가 여기 에 온 후로는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삶았 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몹시 박하게 대하 고 있소. 이 비단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옷을 만드 시오, 그때 만약 아버지께서 그 옷감이 어디서 났느냐고

앞에서 옷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 고 급 비단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렇게 생각했다.

'저 비구는 보기와는 다른 아주 나쁜 놈이군. 내가 준 비단을 고맙게 여기기 는 터녕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의 딸 아이를 유혹하려들다니.'

재상은 그 뒤로는 비구가 찾아와도 못 본 체하며 돌아섰다. 비구는 재상의 태 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보고는 '분명 나를 비방했거나 모함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했다.

비구는 즉시 재상 앞에서 열여덟 가지 의 신통을 나타내 보였다.

이것을 본 재상은 크게 놀라는 한편 부인과 함께 발을 붙잡고 절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재상

은 그 비구를 더욱 존경 하고 믿게 되었다. 그리 고 삼장 법사와 딸은 모두 나라 밖으로 쫓겨 났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때의 삼장 법사는 사실은 바로 지금의 나이 다. 형을 비방하고 모함하였 기 때문에 무량겁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손다 니의 일로 비방을 듣고 있다. 그러 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에 총명한 지혜를 지녀야 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여 죄를 짖지 말아야 하 느니라."

〈잡보장경〉

묻 거 든

'아버지께서 존경하고 사랑하 는 그 수행인이 주었어요.'하고 대답하 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다시는 저 비구와 말고 하지 않을 것이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삼장 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자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 습니까?" 삼장 법사가 말을 받았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는 당신과 영원히 절교할 것이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

재상의 딸은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 때 오는 마음의 울음소리이며 고통이다. 어 그걸 삼장법사에게 보시했다. 그러나 으나 마음이 약해서 그 비단을 받았다. 그녀는 삼장 법사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부처님은 한때 음녀인 손다리의 모함 으로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모함을 받게 된 이유가 부처님 자신이 과거세에 타임을 모함하고 질투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이 설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인간적 인 부처님의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낀다.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스 스로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된다. 결국 그것은 돌고 돌아 자기에게로 되돌 아온다.

질투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증 명'이라고 머피는 말한다.

그렇다. 질투는 남보다 모자람을 느낄

-심일화-



02. 499-9006

이전 확장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 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 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계, 중추신경계, 내분 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겐)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

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 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함.

홍삼기능식품

산삼과 흑삼 엑기스 2400g 즉석판매 국내산 약초 ➡ 현지 직송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동원시장 뒷편 금강산 사우나 앞에서 우측 30m

पुष्टाप रुट्यू

이 때쯤이면 늘 그렇지만, 우리 총 지종 교도들처럼 한 해를 의미 있고 다부지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말로는 새해의 온갖 계획과 포부를 거창하게 다지는 사람들에 비해, 최 대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가족 들의 건강과 무사함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하며 실천할 것을 다지 는 불공을 정성껏 드림으로써 일 년 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하는 불공이지만 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고 마음가짐이 새로 워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올 해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지는 않을지, 눈이 많이 와서 움직임이 힘들지 않을

그 와중에 시작된 불공이라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향 일까지 모든 것이 원 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 서원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기 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음사의 많지 않은 인원 에 언제나 화기애애한 평소의 다소 들뜬 느낌과는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들이 아주 간절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원들도 다 그렇겠지만 아무 래도 일 년 불공이라 그런지 자성, 월초에는 잘 못 나오시던 보살님들 도 잊지 않고 한 분 한 분 나오시니 서원당이 오랜만에 꽉 찬 느낌이었 습니다.

자유인의 건 직지심경

저자 백운 | 역자 덕산 | 출판사 비움과소통





▲일출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큰 나무처럼 앞자리를 지켜 주시 니 나를 비롯한 보살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그 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 정사님께서는 중요한 불공에 더 용맹정진 할 수 있도록 깊 이 있는 설법을 해 주셔서 교도 분들 의 많은 공감과 환희심을 이끌어 내

법공 정사님께서는, 5계로 새해불 공에 임하는 자세와 아울러 인과법 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인과법을 잘 따 르면 된다. 현재 나의 상황은 인과법 을 생각 하면 답이 나온다. 어떤 어 려운 일에 있어서 현실적인 답은 찾 기 힘들지만 인과법으로 보면 그 답 이 명백해진다. 모든 것은 자작자수 이다.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모든 인 연에 있어 서로 은혜 주는 인연이 되 무엇보다도 네 분의 기로 스승님들 면 세세생생 좋은 인과를 맺을 수 있

다. 우리 각자 남에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

첫째 날의 말씀에 이어 다음 날은 "모든 복의 근원은 웃음이다. 우리 몸은 업신(業身)이며 건강은 좋은 업 의 결과다. 웃음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은 선업을 쌓 는다." 하시며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잘 웃어주는 사람이 되자며 건강과 웃음에 대해 들려 주셨습니다.

우승 정사님께서는, "일 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봄에 씨 뿌린 후에도 내 내 정성들여 가꾸어야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거름 등으로 땅에 재투자해 야 다음 농사를 기대할 수 있듯 불공 도 그러하다. 우리가 쉼 없이 불공해 야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며, 그런 의미에서 새벽불공, 자성, 월초, 새해불공을 통해 끊임없이 충

지현 (단음사)

전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 씀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베푼 만큼 돌아온다. 선. 악의 결과도 모두 같다.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상의 음덕이 반드 시 필요하다." 시며 실제로 보시행을 잘 실천해서 자손들이 번창한 얘기 와 반대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법을 해 주시니 많은 교도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스승님 들의 훌륭한 설법 덕분에 서원당의 분위기는 7일 내내 부처님 진리의 향 기가 가득 퍼진 듯 하였고,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공식 시간 전후로 불 러 본 찬불가도 환희심을 내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아 퍽이나 다행스러웠

불공 기간 중에 곳곳에서는 많은 눈으로 교통이 두절 되고 온갖 불편 함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정한 날씨만큼 나름대로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여 모든 면에 서 보다 향상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무척 기쁘고 홀가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 하 나라도 실천하시려는 우리 단음사 교도 분들의 마음 덕택이 아닐까 합

리는 바입니다~^^

계속 저지르며 그것에 묶여 마

사랑한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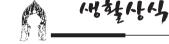
고산 스님 등저 | 불광출판사



법당에서 대중 들을 상대로 설 해진 법문을 엮 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뼈를 깎 는 수행이나 특 별한 비법이 아 닌 일상의 소소

한 일들과 적절 한 비유로 이루어져 더욱 생생하다. 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삶 속에서 뜬구름 잡는 듯한 애매한 결론 대신, 박생기 저 | 불교시대사 계속되고 있는 죽음과 탄생의 문제이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다. 과거의 삶에서 철저히 죽고, 지금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책에서 스 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스스로 지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묘년 새해는 부디 모든 교도 분 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이어 지길 바라며 특히, 단음사를 위해 언 제나 높은 산처럼 큰마음 보태주시 는 네 분 스승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



우리들 이야기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겁고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부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할 수도 없어..

내가 보고싶어 질 때까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이유는,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늘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

당신이 나의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기만을..

당신에게 그런 것들이, 내게 꼭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마냥, 그리운 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잔의 커피속에,

당신을 생각만해도..

지치고, 피곤할 때도

그래서

미소띠웁니다

커피 한잔을 마시는 동안에…

당신을 생각하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 버리는 기분들..

아마도, 당신은 내게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세탁 헹굼 물에 백반을 풀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백반은 살균력이 강하고 탈취 효과도 있다. 물 2 리터에 백반 40 g 정도를 넣어 녹인 다음 헹 굼 물에 50 cc 정도를 넣으면 빨래가 깨끗해지고 냄새도 없어진다.

◀섬유 유연제 대신 구연산을 넣는다 피부가 예민하고 약해서 섬유 유연

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구연산을 이용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약국 등에서 판매). 마지막 헹구는 물에 구연산을 2~3 큰술 정도 넣으면 산이 세제의 알칼리 성분을 중 화시켜 섬유가 부드러워진다.

일송정 (진언행자 카페글)

◀새 스타킹은 식초 물에 담가 둔다 새 스타킹은 살균과 표백 효과가 있 는 식초를 이용해 질기게 만들 수 있 다. 새 스타킹을 신기 전에 식초 물에 담가 두면 올이 잘 나가지 않는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은 총지종의 본존 드시 진언을 씁니다. 다라니밀종이 로 불립니다.

명호를 그대로 부르지만, 총지밀교 직 〈대승장엄보왕경〉 뿐입니다. 에서는 명호와 진언을 구별해서 반

으로서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육자 기 때문에 불보살의 명호를 그대로 대명왕진언입니다. 간략히 관음의 부르지 않고 모든 의식에서는 반드 육자대명, 육자진언, 본심진언등으 시 불보살의 진언을 염송합니다. 관음을 설한경은 많으나 이 육자대 현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명 '옴마니반메훔'을 설한 경은 오



마음의 해탈을 얻은 선종 조사 들『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이 책 은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 록유산에 등재된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2006년, 2009~2010년에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직지〉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불자들의 실제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은〈직지〉 상권 가운데 중국의 조사 48분의 깨달 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했다.

이달의 추천도서

탄생의 영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회'는 꼭 죽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직지심체요절〉의 사상을 현대인들도 음과 탄생의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이다. 충북 만은 아니다. 삶 속에서 같은 잘못을 이다.



는 것이다. 반면 에 자신의 잘못 을 과감하게 끊 고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은 해탈 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매일 겪는 죽음과 탄생을 다루고 있

음이 괴롭다면

살아 있는 동안

에도 계속 윤회

를 경험하고 있

이것은 다만 생명에서의 문제일 뿐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 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패다라(貝多羅):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 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윈 또는 총지종 각 **사윈 주교(총지종 교도에 합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성과 쇄신으로 결사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사진 오른쪽), 포교 원장 혜총스님(사진 왼쪽)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 견을 갖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 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한 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고 명실 상부한 국민의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의 결사(結社)를 펼쳐 나가자"고 제

5대 결사는 △불교 본연의 모 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 구성 사찰간 교류…위원장에 성웅스님 선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회의를 열고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와 운영사찰간의 의견을 수렴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자문위 원장에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과 간사로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선임했다.

자문위원회는 연2회 정기회의 를 열고 사찰간 의견 교류, 사찰 과 불교문화사업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활 동은 △템플스테이 사업의 방향 에 관한 사항 △템플스테이 주 요 사업(시설, 프로그램, 운영인 력 양성, 홍보 등)에 대한 자문 △운영사찰의 의견 수렴 및 제 안 등이다.

단장 정만스님은 "지난해 템플 스테이운영사찰 주지회의에서 협의회 구성이 발의돼 교구본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 다"며 "한국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 바란다"고 말했다.

화수호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및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추진 방 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불교문화사업단 은 △템플스테이 사업비중 축 소 및 국고지원 중심의 사업방 식 탈피 △다양한 불교문화수 익사업의 발굴을 통한 자립기 반 확충 △중장기 사업계획 수 립을 통한 문화사업단의 위상 재정립 및 자생력 강화 △불교 문화 대중화를 위한 연계 교육 사업 및 연구 컨설팅 기능의 강화 등을 올해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다.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24개 단체 대표 40여명 참석

원회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들은 2박3일간 함께 하며 각 제주도에서 불교신행단체, 포교 단체 및 NGO 등 24개 단체를 초 하고,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실천불교전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여성개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문 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4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준비위 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별 2011년 사업계획을 공유 비전과 활동과제를 논의했다. 또 고병수 신부로부터 '지역사회와 종교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기조강연을 들었다.

지 못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생존자체가 절박하다"며 모든 불교계가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또 이웃 종교에

불교는 오직 전통과 역사, 관습

에만 매몰돼 진취적으로 나아가

경의를 표하며 자정과 쇄신의 길을 제안했다. 한국 불교가 지 난 시간 정체됐던 것에 반해 이 웃 종교가 힘들었던 한국 현대 사에서 핍박받고 어려웠던 이들 과 함께하며 힘이됐다고 평했다.

스님은 "오늘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의 허물에 기인한다. 남을 탓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질책, 몸과 마음을 정화해 안을 들여 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요구가 불교계 내부를 향한 것 이며 불교계 스스로 변화의 의 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종단 소속 승려들이

연 10만원의 종도분담금을 납부

하도록 할 것과 법륜 스님(전 종

회의장), 송월 스님(전 서부경남

종무원장), 경담 스님(전국비구

니회 부회장)을 새 원로위원으

불자들에게 맞춤 장례서비스

로 추대하는 것을 의결했다.

관음종, 올해 예산 47억원

화 등이다.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 파 스님)이 1월 13일 서울 숭인 동 묘각사에서 제48회 중앙종회 를 열고, 올 예산 46억8900만원 을 심의 의결했다.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결

사'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

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

결사'△생명공존의 가치를 실

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

결사'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

는 '나눔결사' △종교간 평화와

남북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평

자성과 쇄신 불사를 어떻게 펼

쳐 나갈 것인지 대중공사를 통

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사찰과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종단

에서는 결사운동의 의지를 모으

기 위해 각 교구별, 지역별 민족

문화수호위원회 결성하고 한국

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

색하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

자승 스님은 5대 결사 발표에

앞선 담화문에서 "지금의 한국

화결사'등이다.

다고 했다.

이에 앞서 13대 중앙종회를 구 성, 종회의장에 법명 스님, 부의 장에 혜동ㆍ혜산 스님을 선출했 다. 포교원장에는 대홍 스님이

이날 종회에서 심의 의결된 올 주요사업은 △개산조 태허 조사 조명사업 △영산계단 수계산림 봉행 △승려연수교육(포살계) 봉행 △전국 순회법회 △외국인 초청 한국불교문화체험 △지역 말사 및 서울불교문화대학 활성

를 제공할 천태종 상조회 '금강 드림'이 출범했다. 상조회는 천 태종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주 식회사이다.

(주)금강드림(대표이사 정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은 1월 2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무 실을 열고, 명락사 연화당에서 개업식을 봉행했다.

정산 스님은 개업식에서 "금강 드림은 상장례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복지임을 잊지 않고 부처 님과 지장보살을 받드는 원력으 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축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 혔다.

금강드림 남상명(전 한국산업 증권 전무이사) 회장은 개업사 에서 "금강드림은 기존의 형식 적인 상조서비스와 차별화된 복 지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라며 "종단의 엄격한 관리 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

군 죽비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 청년불자를 대표

하는 대한불교청년회의 새로

운 집행부가 출범했다. 대한불

교청년회는 제25.26대 중앙회

장 이.취임법회를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

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

이날 정우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무차별

적으로 발생하는 불교폄훼와

종교차별, 민족문화 폄하에 대

응해 청년불자들이 삼보외호,

호법안승, 민족문화수호의 호

법신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례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총재 자

격으로 직접 참석하여 청년회

행했다.

천태종 '금강드림' 상조회 출범

종단 전액출자

금강드림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출자했으며, 고객납입금 등 소비 자피해보상을 위한 선수금 50% 를 지정은행에 예치했다. 또 상 조 브랜드인 '정성모심'을 상표 출원하는등 상조사업 추진을 위 한 기본여건을 마련했다. 상조서 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 비스 표준약관에 의해 운영된다.



▲ '금강드림'개업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장례브랜드인 '정성모심'의 상 내 부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하 품은 두 가지이다. 360만 원(월3 고 나아가 관광·요양·임종간 만원씩 120회)을 납부하는 '정성 모심 1호'와 480만 원(월4만원 120회)을 납부하는 '정성모심 2 생활포교 실천에 주력한다는 계 호'등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제26대 정우식 회장 취임

"불교계와 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회가 될 것"

▲정우식 대불청 신임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징

를 격려했다.

지난 10월 제57차 대의원총

회에서 26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우식 회장은 오는 2012년 12

월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

한다.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거

쳐 청년회 정책기획실장, 통일

추진위원장, 시민사회위원장,

조계사 청년회장 등을 역임했

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서

원이 없는 청년불자는 청년불

자라고 할 수 없다"며 "불교계

와 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회

가 되도록 저부터 분발하고

정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

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청년불

(주)금강드림은 올해 상반기

교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서 원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내지 못하는 큰 서원"이라고 평가 한 뒤 "그 서원을 현실화해 나 갈 수 있도록 정우식 신임 회 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열심히 정진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불 교 중흥의 기회로 만들어 나 아가는 힘찬 대한불교청년회 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축원

한편 정우식 회장은 청년회 총재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혜총스님,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 전 포교원 장 도영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을 부총재로 추 대했다.

또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 사를 명예 회장에 위촉하고 제정스님과 이만희 불자를 각 각 전법위원단장과 청년호법 단장으로 임명했다. 전법위원 단은 앞으로 취약계층 포교 지원에 나서며 청년호법단은 정부와 여당,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감시하는 특별기 구다. 더불어 2008년 베이징올 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 촉했다.

호·장례식장 등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를 구축해 종도를 위한

획이다.

金억室 奔部沿山口!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제41회 졸업식>

• 일시: 2011년 2월 9일(수요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

• 장소 : 해오름관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051-556-0281

실지사교도 손자 7세

천승현군 한자 능력시험 합격



▲천승현군(왼쪽)이 할머니(홍정숙 보살)품에 안겨있다.

교도 손자 중에 한자(漢字)에 뛰어난 어린이가 나타났다. 서울 실지사(주교 연등원 전수) 홍정 숙 보살님(마니 합창단원)의 손 자인 천승현군이다. 천군은 작년 7살 때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5 급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가 족과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어단어 뜻도 알기 어려운데

한자를 써서 가족들은 기특하다 고 했다. 5급 시험은 주로 초등 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수준이다. 어렸을 때 외할 아버지에게 한 글자씩 익히다가 조금씩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한자공부에 관심을 가져 인터넷에서 "깨비퀴즈"에 나오 는 한자를 공부했다. 5살 때 선

엇보다 내가 보지 못했던 새들

을 봤다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았다. 관광을 하는 도중에 망

원경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과학관에 가서 우리가 1

학기 때 배웠던 망원경과 행성

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았는

데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도 생

각이 났고 실제로 내가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였다. 그 후

관측 실에 가서 망원경으로 새

생님의 지도아래 8급부터 시험 을 준비했다고 한다.

실지사주교로 있었던 록경정 사에 의하면 천군이 절에 오면 액자에 있는 한자와 경전에 나 오는 한자를 물어보곤 했다고 한다. 한편 천군의 가족은 실지 사에서 4대째 다니고 있다고 한 다. 노할머니(성대성 보살), 할 머니(홍정숙 보살), 어머니(이정 화 보살), 아이들(천승현,천재 명)까지 독실한 불교집안으로 항상 '옴마니반메훔' 불공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단음사 자비성금 방송국 전달

영천 단음사(주교 지현 전수)에서는 2010년 지난 한 해 서원당 내에 '자비의 돼지 저금통'을 준비하여 교도분 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전을 모았다.

동지, 창교절 행사 후 윷 놀이를 해서 당일 모은 금 액과 교도들이 집에서 모은 동전을 합쳐 소중한 성금을 모았다. 교도들과 의논하여 총지종과 단음사를 널리 알 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 해 대구 방송국에 성금을 보 냈다. 작은 정성이지만 자비 를 베풀고. 진리를 넓히는 길 에 보탬이 되기를 서원한다.

교도와 같이 부른 찬불가 나를 참회하고 용맹정진 힘을 길러

사원에서 공식 시간에 교도들과 몇 곡의 찬불가를 불렀습니다. 반주는 피아노 대신 오디오로 하고 연세 드신 보살님이 많은 점을 감안해 사려 깊은 스승님 께서 큰 글씨로 복사한 가사집 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불러 보는 찬불가였지만 연세 드신 보살님들도 열심히 따라 부르시곤 "가사를 알아야 따라 불러 보제"라고 말씀 하시 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CD를 구워 달라고 전 수님께 부탁 드려야겠다는 생각

지난 자성일(1월16일) 단음사 이 들어 말씀드렸더니 이미 준 비되었다면서 두 장을 받아 들 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바로 차에 서 듣기 시작 했습니다.

> 어찌 그리도 제 맘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 그 후론 차 시동만 걸면 흘러 나오는 찬불가가 다시금 나를 참회케도 하고 용맹 정진의 힘 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곡은 거의 익혀진 상태라 가사 외우기에 돌입하기 로 하고 실린 곡 순서대로 가사 를 정리해서 페이퍼로 만들어 준비를 했으니 이젠 의미를 새 기며 열심히 부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감사 합니다 전수님 감사 합니다. 행복 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단음사통신원 (권순복 보살)

통신원 조직 구성 - 4월중순, 전체투표 예정

전국의 각 사원에서 소식을 알 려주고 있는 통신원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있는 시스템을 갖 추러 한다. 2월 8일 통리원사무 실에서 보정, 서울경인 신정회 김은숙회장, 이인성 부회장, 통 신원 박묘정, 박정희, 최영해, 강 경민(이상 교도), 박종한교무,

에 대하여 회의를 했다. 통신원 조직은 각 교구별로 회장과 총 무를 선출한 후 전 통신원을 대 표하는 전체회장을 투표로 선출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구에서 선출된 통신원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고문단은 현 각 교구 신정회장이 맡게 된다.

서울경인교구는 3월 중순까지

망원경을 만들었다. 내가 손재

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늦게 망원경

이 제작되었다. 망원경으로 산

을 보니 산이 자세히 보이고

뒤집혀 보였다. 그리고 진짜 실

제 망원경을 보았다. 몇 백만

회장과 총무를 선출할 예정이다. 화령정사와 법장원 보정은 3월 말까지 각 교구를 순회하며 통 신원 모임에 참석하여 조직구성 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한다. 한 편 통신원 전체조직의 회장선출 투표는 4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

배공주교무가 통신원 조직구성

하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

할 예정이다.

과학캠프를 다녀와서



동해중 2학년 5반 제영주

나는 7월 20일에서부터 7월 22일까지 순천만 생태공원 및 성암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과 학캠프에 참가했다. 나는 과학 에 그다지 소질은 없지만 못하 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과학캠 프에 참가하게 됐다.

출발부터 원활하지 않았다. 내가 길을 잘 몰라서 버스를 들을 보았는데 귀한 새들이 세 번 기회를 통해 까먹지 않을 체험이 되었다. 저녁에는 광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 가장 늦게 타는 일이 일어났기 마리 정도 보여서 순천만이 정 것 같았다. 불을 끄고 열쇠고리 유 램프를 만들었는데, 꼽아야 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과학성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탑승 말 깨끗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 를 보니 반짝반짝하여 내 마음 하는 것이 많아서 헷갈렸지만 적도 향상시켜서 도움주신 선 하고 즐거운 과학캠프를 하러 게 되었다. 순천만에 갔다. 그곳에 가서 갈 성암 수련원에서 오후에 지 두 번째 날에는 먼저 간이 기에 광섬유를 많이 끼워 넣으

작했다. 먼저 오징어 해부를 했 다. 나는 오징어 보는 것을 별 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까이서 대열차와 배를 타고 구경을 하 보니 정말 속이 뒤집힐 것 같 는데 갈대열차는 갈대만 보여 았다. 오징어 해부는 친구들 거 서 딱히 재미가 없었지만 배를 의 다 도와주었다. 내가 오징어 타고 순천만을 둘러보는 것은 해부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스피커에 오징어도 이렇게 많은 장기들 서 안내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새를 관찰하니 정말 기분 좋았고 무

원 하는 망원경이라고 선생님 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망원 경에서 광채가 나는 듯 했다. 광섬유 램프 만들어 아름다운 광경 연출

망원경을 직접 만들고 산을 보니 자세히 보여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징 어 해부를 하고 별자리 열쇠고 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 면서 여태껏 내 생일에 맞는 별자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양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도 반짝반짝하였다.

망원경을 보는데 정말 선명하 게 보였고 렌즈마다 원근감이 다르게 보여서 신기하였다. 구 름이 껴서 아쉽게 태양 흑점 관측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 도 망원경으로 그냥 먼 산만 본 것으로도 나한테는 즐거운 만들고 나니 정말 멋있었고 거 생님들께 보답해 드려야겠다.

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 되었다. 폭포수에서 아름다운 빛깔의 물들이 내려오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다.

셋째 날에는 빛 합성기를 제 작하였다. 동시에 불을 넣으니 색이 합성되어 색이 나오는데 내가 빛이 합성되는 것을 만들 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뿌듯했다.

나는 이번 과학 캠프로 인하 여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먼 저 기본적인 과학상식을 몇 가 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일 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자유 시간에 족구를 하다 얼굴에 공 을 맞아 피가 아주 약간 났었 는데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너 무 너무 감사하였다. 또 몰랐던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기뻤다.

앞으로는 과학에 자신감을

재미있었던 스키캠프



교동초 6학년 윤주희

우리는 7시 50분에 바라밀 에 모두 다 모였다. 한명씩 정각사 서원당에 가서 인사 를 드린 후 8시에 관광버스 를 타고 강원도로 출발하였 다. 가는 도중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린 드디어 도착을 하였다.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께 배 웠는데 어제 배웠던 기초 스 키를 익힌 후 드디어 리프트 를 타게 되었다.

리프트를 타고 숲으로 들 어갔을 때는 조금 무서웠다. 정상에 올라온 후 우리들은 스키를 타며 내려왔다. 타면 서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빨라 져서 A자로 내려오다가도 넘 어지곤 했다. 넘어지다 일어 서다를 반복하며 내려왔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그 후 오후 스키때는 바로 리프트를 타 고 올라가 스키를 반복해서

그날 밤에는 소극장에 모 여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장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고, 내년도 참가하고 싶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 운 바람이 불어왔다. 먼저 소 극장으로 가서 입제식을 하 고 숙소로 갔다. 밥을 먹고 숙소에 짐을 푼 뒤 스키를 타러 갔다. 파란 털모자와 무 지개 고글을 쓰고 있는 선생 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 배우는 스키라 너무 설레었

우선 A자로 벌리고 내려오 는 것부터 배웠다. 다른 애들 은 팔이 똑바로 있는데 나는 흔들거려 쉽지 않았다. 기초 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스키가 조금은 익숙해셔 점 다. 내년에 또 스키캠프에 참 점 흥미가 생겼다.

찍 일어나 아침불공을 드리 감사드립니다. 고 식사 후 스키를 타러갔다.

기자랑 첫 번째가 우리 바라 밀아이들 중 여자아이들이었 고 세 번째가 남자아이들이 었다. 우리는 1,2등을 석권하 여 아주 기뻤다. 또 선물도 받고 선생님들께서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셨다. 즐거운 이틀밤을 보내니 내일이 오 는것이 슬펐다.

마지막 셋째 날도 오전에 스키를 즐겁게 타고 점심을 먹은 뒤 퇴소식을 하고 부산 으로 출발하였다. 2박3일 동 안 재미있고 신나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 가하고 싶다. 저희들을 위해 스키캠프 둘째 날에는 일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타

후원문의: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경(051-552-0705)

주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051)552-0704

풍경소리

마음밭 가꾸기



마음도 복도 밭에다 비유하 여 심전心田, 복전福田이라고 합니다.



'마음 밭'에는 오늘도 셀수 없는 종류의 씨앗들이 날아와 떨어집니다. 고민의 씨앗, 화의 씨앗, 욕심의 씨앗, 기쁨의 씨앗, 고

마움의 씨앗, 사랑의 씨앗도 떨어집니다. 자기 마음 밭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좋은 씨앗들만 키워야 합니다. 과수원이 되기를 원하면 유실수만 자라게 해 야 하듯 말이니다.

마음 밭, 복 밭의 씨앗들은 '시간'이라는 영 양분을 먹고 삽니다.

날아 든 고민의 씨앗에 시간을 투자하면 고 민 밭이 되고,

화의 씨앗과 시간을 보내면 보낸 만큼 화 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마움의 씨앗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 마음은 환한 고마움 밭이 되고, 감사와 사랑의 씨앗과 오래하면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감사 밭, 사랑 밭이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마음 밭, 복 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을 골라서 키우기로 합시다.

누구나 와서 넉넉히 쉴 수 있는 숲으로 키우면 더욱 좋겠지요.

이정우 (군승법사)

남과 나

눈을 잘 다스리라 함은 남의 잘못만 보지 말라 함이고



입을 잘 다스리라 함은 남의 허물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잘 다스려 탐욕을 가려내고 스스로 꾸짖을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민호 (아동문학가)

하루를 살듯이



일을 시작함에 평생동안 할 일 이라 생각하면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 는 것도 하루만 하라면 쉽고 재미있습 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 만이 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 니다.

백년도 하루의 쌓임 이요, 천년도 오늘의 다음날이니 하루를 살 듯 천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법현 스님

| 실大만 모시 달다 암

이달의 명상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성을 들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가 이다.

_ 법정 _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울라.kr 모든 보살은 네 가지 서원으로써 유정을 제20호 성숙케 하고 삼보를 잘 지켜 영원토록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 되는대로 막 사는 길 떠벌! 첫째, 맹세코 내가 만약 저 맹세가 모두 껍데기 없이 떠벌! 일체 중생을 거짓말이야. 대통령이 돌아다니면 제도할 된다면 위험해. 것이요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공

















내용참조: "불교총전" 수도편 84p-11

회 장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고급원색인쇄 대국전 5색·4색·2색 / 광고기획 / 출판 / 카다로그 / 브로슈어 / 전단 / 명함 / 사보편집

판촉물 일체

謹賀新年

壽山福海

萬事亨通



ONE-STOP SYSTEM

인쇄와 판촉물의 모든 것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 02-498-6161T(代) Fax. 02-469-9017



인쇄물 일체







주식회사 윤일문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7

E-mail: orient-kim@hanmail.net Webhard: dongw(ID), 4567(PW)

《내 인생의 멘토, 붓다》 화령 정사 신간 출간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특별 인터뷰

이 내용은 중앙교육원 원장인 화령 정사가 지난 1월 27일 불교방송 〈무명 을 밝히고〉에 출연하여 신간 《내 인생 의 멘토, 붓다》(불광출판사)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보완하여 옮긴 것이 다.

진행자: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질문에 부딪히 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 바른 길인지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의문이 들 때, 우 리는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이나 선배 를 '멘토' 삼아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요.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 는 멘토로서의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 침을 담은 책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내 인생의 멘 토, 붓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화제의 현장 시간에는 이 책 의 저자이신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 원장 화령정사를 자리에 모셔서 자세 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령정사님. 이번에 〈내 인생의 멘토 붓다〉라는 책을 내 셨습니다. 어떠한 책인지 청취자분들 에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화령: 인간이되 인간을 초월하신 붓다, 한 마디로 인류 최고의 멘토라 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 르침과 생애에 대한 책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자비로써 우리의 삶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멘토링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석가모 니 부처님에 대한 전기는 너무 학술 적이라서 대중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 있었고, 아니면 대승불교의 시각 에서 부처님을 묘사하다 보니 신화적 이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 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일 생을 그리되 우리 앞에서 살아 계시 면서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인간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자: 먼저 '멘토'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멘토의 개념 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르쳐 주는 사람, 스승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 자, 자상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등의 요?

의미가 담겨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께 정말 잘 어울리는 호칭이라고 생

질문자: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은 어떠한 멘토였 다고 보면 될까요?

화령: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교조적인 것도 아니었 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붓 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상하고 친절하며 조리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멘토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이셨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거나 예능을 가르치는 멘토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 나서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조언을 주신 인생의 멘토였으며 괴로움에서 벗어 나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가 르쳐 주신 멘토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자상하고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시 며 보편타당한 진리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멘토링을 해 주신 분입니다.

질문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똑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죠?

각각에 맞는 '맞춤식 멘토링'을 하 셨다고요?

화령: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 우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모두 다르 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호 출신의 소 나에게는 거문고의 비유로 너무 조급 하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말며 그렇다 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절히 수 행하라고 가르치셨지요. 반대로 졸고 있는 아나룻다에게는 더욱 열심히 하 라고 다그치신 결과 결국 아나룻다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조 차도 신발을 털고 닦는 단순한 방법 을 통하여 바보 출라판타카도 깨달음 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눈 높이 교육이고 맞춤식 멘토링이었던 거죠.

질문자:실제 삶에 있어서 화령정 사님에게 부처님은 멘토와 같은 존재 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화령: 멘토의 사전적 풀이로는 가 멘토 붓다〉라는, 이번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 인생의 멘토로 서 부처님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화령정사

화령:젊은 시절은 누구나 그렇겠 지만 인생관의 확립과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적인 방황을 많이 하지요. 저도 여러 가지 사상을 많이 섭렵했습니다. 전공이 중국문학 쪽이 다 보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유교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대부분의 사상은 너무 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이라서 양

에 차질 않았습니다. 노장 사상도 현

지요.

질문자:화령정사님이 쓰신 책 (내 인생의 멘토 붓다〉가 멘토로서의 부 처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 지요?

화령: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부처 님의 멘토링의 사례가 경전을 인용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멘토링에 맞춰 부처님 생애 그려

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은둔하고 회피하는 분위기라서 좀 무기력한 감 을 느꼈고요. 그리고 서양철학은 정 교한 이론에 비해 실천체계가 미흡했 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 하여 행복의 길을 찾는 다는 것이 쉽 지 않았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유 일신교의 교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 고요. 그러던 차에 부처님의 가르침 을 만나 확실한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었지요.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에 눈 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연기로서 이루어진 세계 이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넘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멘토를 통하여 제가 확립한 인생관 내지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

여 소개되어 있습니다. 붓다의 맞춤 식 멘토링이라든지 아들 라훌라를 가 르치신 이야기, 좋은 벗에 대한 이야 기, 행복을 얻는 삶의 지혜 등등 현 실 생활과 밀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 분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멘토로서의 부처님의 일대기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화적인 묘사라든지 비현실적인 문학적 표현 등은 배제하고 눈앞에 살아계시는 멘 토로서의 생생한 붓다의 모습을 그리 려고 했습니다.

질문자 책 첫머리에 보니까 '붓다 를 닮기 위한 자기 점검 리스트 20가 지'가 실려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을 점검하는 건가요?

화령:대부분의 불교신도들이 기복 위주로 신행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성

불에 대한 너무 거창한 목표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할 사 소한 것들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기본적인 덕목도 못 지키고 자 기 절제도 못하면서 성불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기 본적인 덕목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자기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런 리스트를 통하여 점 점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기점검 리스트를 만 들어 봤습니다.

질문자:육신을 지닌 한 인간으로 서, 생전에 부처님이 현실 속에서 사 람들에게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셨는 지 궁금한데요. 책에 담긴 구체적인 일화 가운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화령: 부처님 말씀 중에는 우주와 인생의 비밀에 대한 어려운 것도 있 지만 일반 대중을 위한 쉬운 가르침 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가 운데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정 관리법 이나 재산 관리법, 좋은 벗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인 윤리, 부처님의 건 강에 대한 조언, 나라를 부강하게 하 는 법 등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죠.

질문자: 그렇겠네요. 특히 재가불자 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 니다. 화령정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멘토링을 전해주고 싶 으세요?

화령: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셨 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포 함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 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물질 위주 이고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연기의 세계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 의 세계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이 기적인 행복의 추구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 면 합니다.

질문자: '멘토 붓다를 닮아가다보 면, 어느새 당신도 누군가의 훌륭한 멘토가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 절이 책에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누구나 붓다와 같은 멘토가 될 수 있 을까요?

화령:당연하지요. 우리 불자들은 성불이라는 너무 거창한 목적에 주눅 이 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결 점부터 고쳐나가다 보면 1%라도 붓 다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의 부처, 3%의 부처 하는 식으로 점차 부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멘토가 되어 이웃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

질문자:이렇게 좋은 책도 내셨지 만 불교총지종 교육원 원장으로서도 올 한해 바쁘게 활동해나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발원 세우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

화령: 우선 불교를 통해서 우리 모 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가 1600년이 넘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바 른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지종은 물론이고 모든 불자 한 분 한 분이 불교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이웃에 불교를 잘 알릴 수 있는 포교 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지종에서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국제재가불교대회와 처음으로 기획하는 생활불교학술대회가 무사히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는 〈내 인생의 멘토, 붓다〉이 책이 많이 읽혀져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 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 불교인 가운데에서 새로운 불자가 많 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 고 올 한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쉬운 불교 책을 좀 더 쓰 고 싶습니다.

진행자 : 오늘 화제의 현장 시간에 는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 원장이신 화령정사님 자리에 모셔서 최근에 내 신 책 〈내 인생의 멘토 붓다〉에 대해 서 말씀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이렇 게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화령: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리 박종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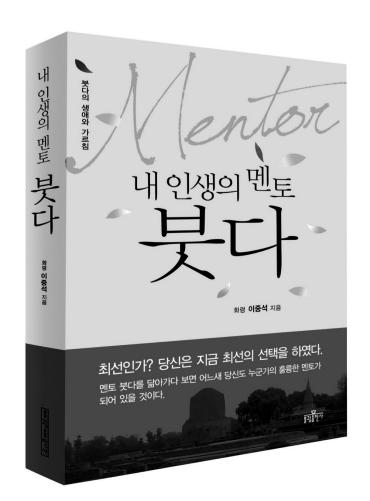
조 선이 기 의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붓다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자질, 인식 능력에 따라 맞춤식 멘토링을 통 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붓다의 제자들 역시 붓다를 닮은 훌륭한 멘토가 되 어 수많은 민중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종교가 되었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내인생의멘토

변경 보기 등로구 수송동 46-21 3층 / 전화 (02) 420-3200 / 팩스 (02) 420-3400 http://www.bulkwang.co.kr



스티브 잡스의 무한 혁신의 비밀은 불교에 있었다. 친생명의 종교인 불교가 이 시대의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박원순 변호사, '살아 있는 경영의 신' 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 의 경영철학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아놀드 토인비, 아인슈타 인은 미래 인류의 희망은 불교에 있다고 하였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 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190쪽 | 10,000원 | 호우사이 아리나 지음 | 이필원 옮김

화령 이중석 지음



종조 탄신일 104주년 봉행식



▲원정기념관을 관람하고 있는 효강 종령 예하와 스승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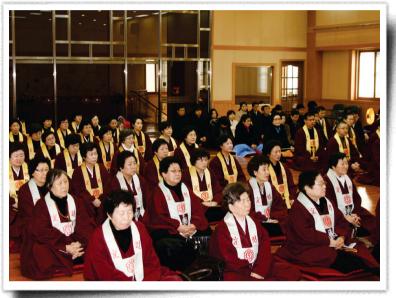


▲서울 경인 신정회 김은숙 회장이 봉축 발원문 낭독.



▲원정 대성사의 유족과 대화 모습.

신년 하례 법회



▲신년하례 법회때 스승들.





▲새해불공때 교도들의 헌향.

총지 청소년 겨울스키 캠프



























